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0
12.02(수) 10:00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주최
전라북도의회,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관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나눔 사회 : 조 용 희 국장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환영사 한 제 옥 상임대표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격려사 송 병 주 대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국 주 영 은 의원 전라북도의회

나 석 훈 본부장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발제·토론 좌장 : 이 현 민 사회적금융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제발제 1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의미와 필요성

강 범 석 센터장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주제발제 2

사회적가치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김 현 철 정책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정토론

군산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 지 규 옥 센터장 군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완주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 이 근 석 센터장 완주소셜굿즈센터

익산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 김 창 균 센터장 익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주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 김 창 환 센터장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진안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 한 명 재 센터장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 정 2020년 12월 2일(수) 10:00~12:00

장 소 전북도의회 세미나실(1층)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주 최 전라북도의회,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주 관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후 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차 례

▶▶▶ 진행일정	05
▶▶▶ 주제발제(1) 사회적가치지표측정(SVI)의 의미와 필요성	07
▶▶▶ 주제발제(2) 사회적가치지표측정에 대한 방법론적접근	35
▶▶▶ 지정토론 지역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51
▶▶▶ 종합토론 사회적가치지표 정책 및 활용방안	63
▶▶▶ 참고자료	6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적가치지표 정책 및 활용방안”

2020년 12월 02일(수) 오전10시~12시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진행일정

		사 회: 조용희 국장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북네트워크
		환영사: 한제욱 상임대표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북네트워크
10:00~10:20(20`)	여는시간	격려사: 송병주 대 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국주영 은의원 전라북도의회 나석훈 본부장 전라북도일자리경제본부
		좌장: 이현민 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회적금융위원회
10:20~10:50(30`)	주제발제 (1)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의미와 필요성 강범석 센터장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10:50~11:20(30`)	주제발제 (2)	● 사회적가치지표측정에 따른 방법론적 접근 김현철 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정책위원회
11:20~11:25(5`)	지정토론 (1)	● 군산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지규옥 센터장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25~11:30(5`)	지정토론 (2)	● 완주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이근석 센터장 완주소셜굿즈센터
11:30~11:35(5`)	지정토론 (3)	● 익산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김창균 센터장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35~11:40(5`)	지정토론 (4)	● 전주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김창환 센터장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11:45~11:50(5`)	지정토론 (5)	● 진안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한명재 센터장 진안회적경제지원센터
11:40~12:00(20`)	종합토론	● 사회적경제가치지표 정책 및 활용방안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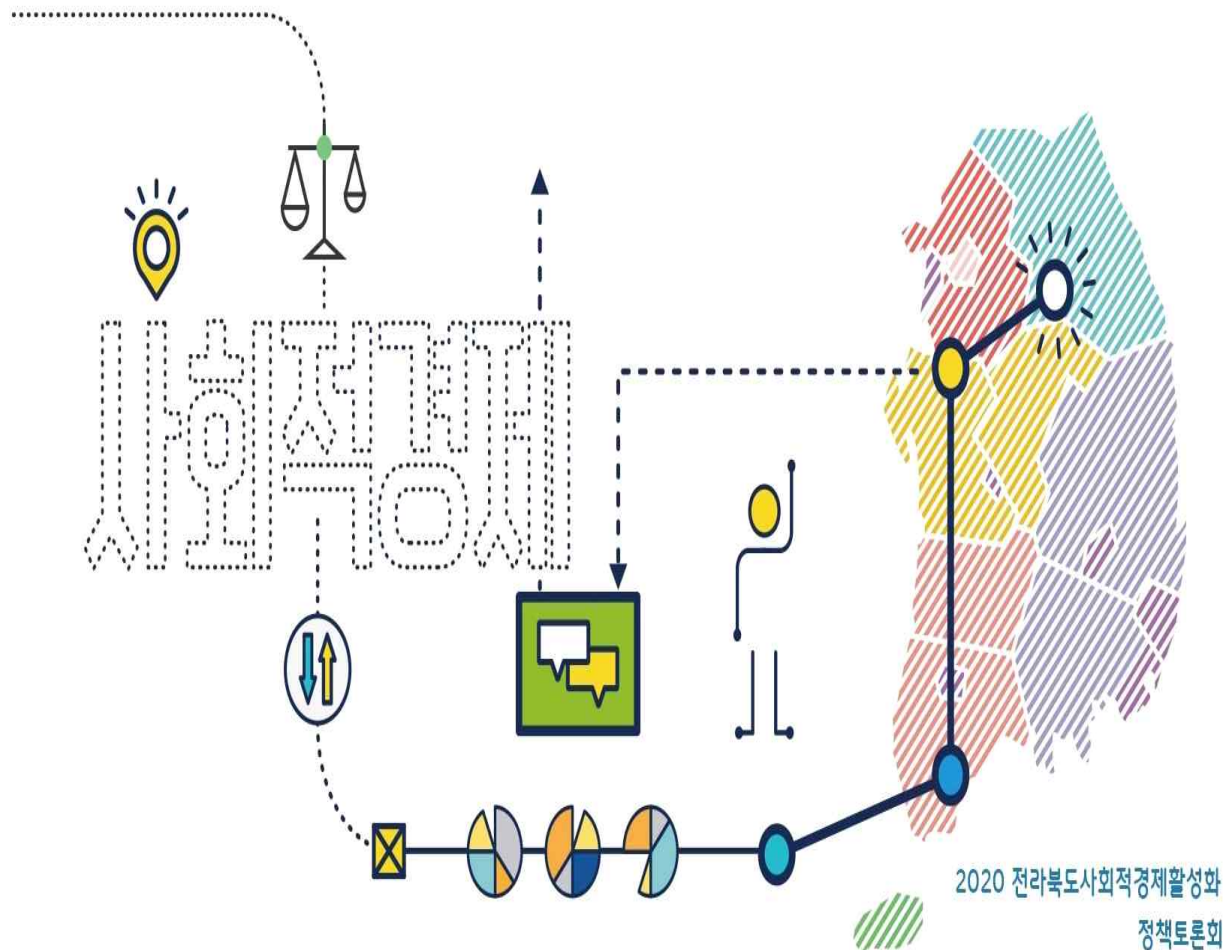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a thin grey line, occupying the majority of the page. This box i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주제발제1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의미와 필요성

강범석 센터장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의 의미와 필요성



강 범 석

오늘의 순서

- 사회적가치의 의미
-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이해
-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활용 사례
-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적용

사회적가치의 의미

사회적가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유용(有用)·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이나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말한다.”

‘가치(價値)’, 위키백과



₩ 1,470,000



₩ 200,000



₩ 3,260,000



₩ 169,000

“사회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권리**와 **자유**,
권한 및 **기회**,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과 같은 가치들”

「사회적가치론」 Micheal Walzer

노동권

노동을 할 능력을 갖춘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470,000



₩ 200,000



₩ 3,260,000



₩ 16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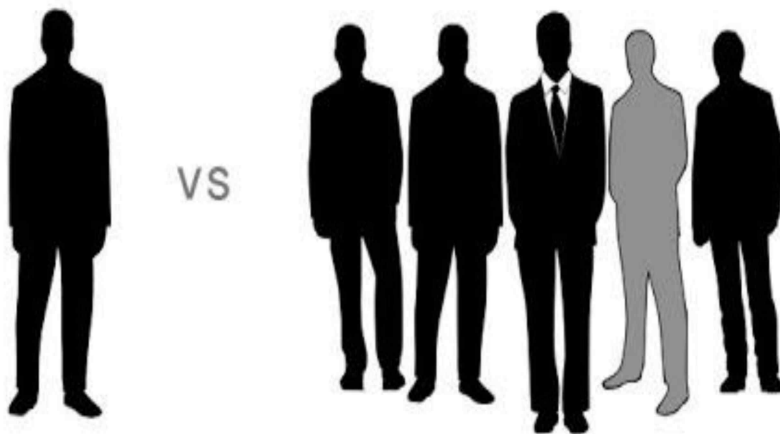
정리하면

화폐 등의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

- 공공성
- 유동성
- 다양성
- 협의성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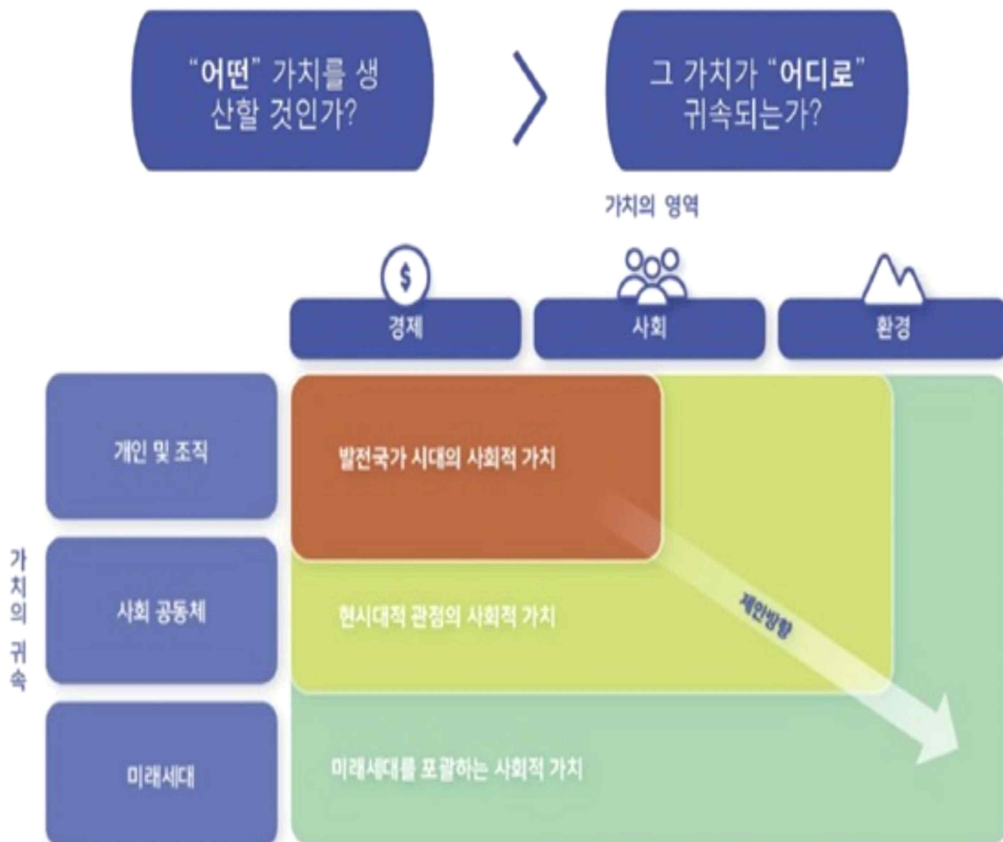


공개적이고,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

유 동 성



사회적 가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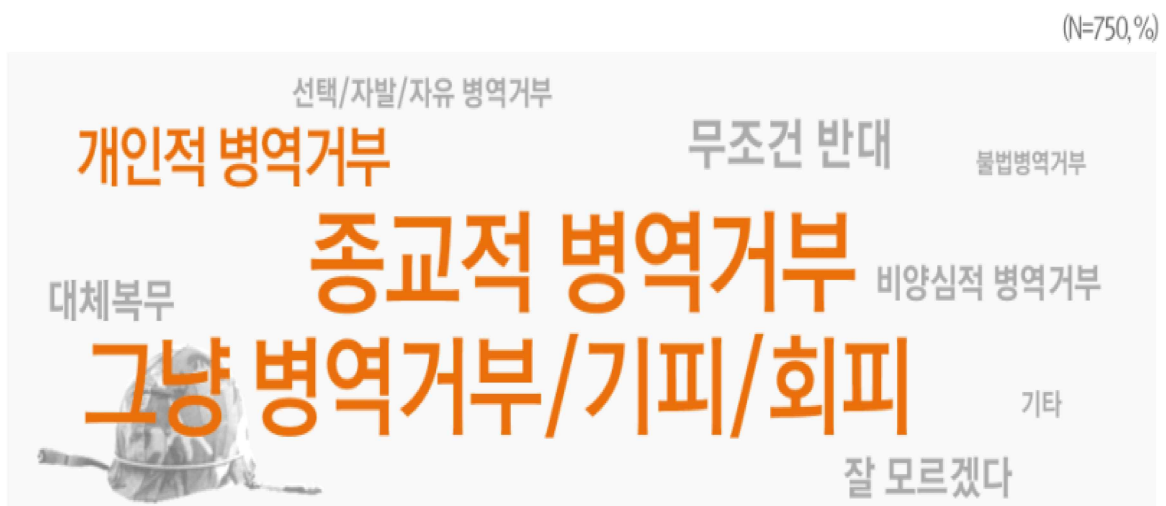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발췌, '<https://www.makehope.org/>'

다 양 성



사회적 합의체로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가치가 발현

협 의 성



사회적 가치들의 서로 상충될 때, 이를 조정하고 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가치론」 Micheal Walzer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익의 실현**”



사회적가치의 의미

국내 법령



“ 이 법은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제정안) 」 제 2조(기본 이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적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사회적경제 기본법 」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Etc.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이해

2020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사회적 가치 지표(SVI : Social Value Index)

-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 ·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수준을 파악하여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
-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판단 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함
- 측정 및 평가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청취로 **개선·보완** 추진

사회적 가치 지표(SVI)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개별기업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 제고 및 우수기업**과 외부 **공공·민간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지원
-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 선정**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 자료**로 간접 활용되도록 객관적인 정보 제공
- 종합적인 사회적가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관점 모두를 포함하여 활용가능
-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표 내 '경제적 성과', 관점을 제외한 '사회적 성과, 혁신 성과' 관점만을 부분적으로 활용가능

지표 구성

(특성)

- 관점별로는

사회적성과(60%), 경제적성과(30%), 혁신성과(10%)

- 측정 방법으로는

계량지표(65%), 비계량(35%)

- 활용되는 사업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유연하게 적용(지표의 모듈화)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조직 운영 (18)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측정결과의 종합

종합점수 등급 :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4단계 등급으로 산출

종합점수	등급 정의
탁월 (90점 이상)	모든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 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을 갖추고 효과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 를 달성하는 수준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미흡 (70점 미만)	일부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활동이 미비 하여 개선 을 위한 변화시도가 필요한 수준

측정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 용	
1	메뉴얼 제작·배포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매뉴얼 제작 및 측정기관 등 배포·교육
2	지표 교육 및 안내	진흥원, 측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측정방법 등 교육(진흥원 -> 측정기관, 기업) •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측정기관 -> 기업)
3	신청서 작성·제출 및 현장실사 준비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I가 활용된 외부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참여 신청 •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재 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구비 등 현장 실사 준비
4	사회적 가치 측정 (현장실사)	측정기관 (or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작성하고 제출한 신청서 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준비(기업 면담일정 조율 등) • 참여기업 현장실사(증빙자료 확인)를 통한 신청서 내용 확인 및 사회적가치 측정 실시
5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측정기관 (or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관) 현장실사 후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검토, 분석 • (진흥원) 측정기관이 제출한 측정 결과보고서 검토
6	평가단 운영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전문평가위원 구성(현장·학계 등 전문가) • 평가단에 의한 측정결과보고서 최종평가 및 점수 확정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지원 • 참여기업 현장 실사 및 사회적 가치 측정 •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사회적 가치측정 결과 DB 구축 및 분석 • 사회적가치지표 정교화 및 개선, 보완 작업
측정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지표 교육(기업대상) • 참여기업 사회적 가치측정(현장실사 등) • 기업 측정결과 구축 및 진흥원 제출 • 지표 관련 의견사항 개선 및 피드백
참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활용 지원사업 및 사회적가치 측정 참여 • 신청서 작성 및 진흥원 또는 측정기관 제출 • 현장실사 시 신청서 기재내용의 증빙자료 준비 • 지표 관련 의견사항 개선 및 피드백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활용 사례

사회적가치 지표 주요 활용 사례(2018년)

기 관		분야	내 용
1	신용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공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SVI 측정결과에 따른 보증우대(신보), 저리 대출(IBK)
2	서민금융진흥원	공공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개발협약' 체결 및 SVI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심사, 금융(대출) 지원
3	소상공인진흥공단	공공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지원사업에 SVI를 반영한 대출심사지표 개발 및 상시적 자문 및 협업 추진
4	제주도개발공사	공공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공사의 제스피 사업권에 대한 민간이양을 위해 SVI를 기업선정 심사표에 반영
5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	HF 사회적가치 보상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SVI 측정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반영
6	LG전자, LG화학	민간	2018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의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SVI 측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7	SK Sunny	민간	SK Subby 대학생봉사단(동아리)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SVI 시범 측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대

사회적가치 지표 주요 활용 사례(2019년)

기 관		내 용
1	한국연구재단	SVI를 활용한 기관내부 사회적가치 및 성과 자체측정, 기관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결과 공표
2	주택도시보증공사	SVI를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례보증상품 개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 사회적기업 대상 SVI 측정을 통한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지원
4	한국남동발전	SVI를 활용, 남동발전과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용 '사회적 가치 측정 지수' 공동 개발
5	한국마사회(제주본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에 SVI를 적용하여 기업심사 및 우수 기업 선정
6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출자회사(3개사) 경영평가 시 SVI를 적용한 기관 평가 실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사회적가치 보상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SVI 측정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 사회적기업 소셜밸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해 관내기업 20개소 대상 SVI 평가지원 및 컨설팅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적가치 실적 계량화 및 현황 분석을 위해 SVI를 활용한 측정자문
10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SVI를 반영한 '완주형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자문
11	LG전자·화학	2019 LG소셜캠퍼스지원사업' 참가 사회적기업 대상 SVI 측정 및 우수기업 선정 지원

사회적 가치지표(SVI)의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부록 측정기준표

[참고자료 1] 업종 분류기준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 참조)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허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업종 분류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준으로 실적 기재

- 표준산업분류 - 통계분류포털

재정지원 사업 내 SVI 적용 체계

분야		측정 지표	배점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만 적용)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4. 혁신 노력도	30점
	재심사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만 적용)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20점
	재참여	1번 지표 ~ 9번 지표	60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만 적용)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4. 혁신 노력도	35점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_ 3개 지표 활용

- 3번 지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 6번지표
사회적 환원 노력도
- 14번지표
혁신 노력도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회적 성과 (60)	사업 활동 (3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조직 운영 (18)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10. 고용성과	10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_ 2개 지표 활용

- 3번 지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 6번 지표
사회적 환원 노력도

관점	범주	영역	측정 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운영의 민주성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조직 운영 (18)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13. 노동생산성	13. 노동생산성	5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_ 9개 지표 활용

(자격)

- 가. 최대 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인증 사회적기업
- 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 다. 사회적 가치 수준(SVI) 측정 결과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 사회적기업이 '민소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노숙인·알콜중독자 등 극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수준만 평가(다만 적용)

(적용지표)

사회적 가치지표(SVI) 총 14개 지표 중 '사회적성과' 관점의 9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수준을 평가

(평가체계)

사회적 가치 수준 판단은 공정성을 위하여 광역단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평가를 의뢰하며, 최종선정은 광역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관점	범주	영역	측정 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운영의 민주성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조직 운영 (18)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13. 노동생산성	13. 노동생산성	5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_ 3개 지표 활용

- 3번 지표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6번지표
사회적 환원 노력도

- 14번지표
혁신 노력도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업 활동 (3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성과 (60)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조직 운영 (18)	근로자 지향성 (13)	운영의 민주성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2. 영업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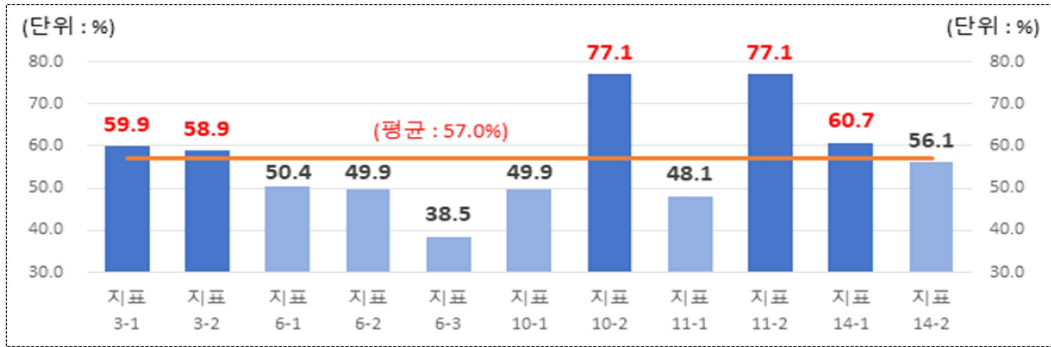
2020 전라북도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결과 분석

14개 지표(사회적경제기업 170개소)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값

관점	범주		영역		측정치표				비고					
	배점	측정점수	배점	측정점수	배점	측정점수	배점	측정점수						
[지표] 사회적성과	60점	35.3	조직미션	7점	5.1	사회적미션	7점	5.1	0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점	2.0	계량지표		
			사업활동	35점	19.6		주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15점	8.9	02. 사회적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점	3.1	계량지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점	5.9	03.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15점	8.9	비계량지표	
							사회적문제 재투자	10점	4.8	03-1. 내부운영 사회적가치	5점	3.0	-	
								03-2. 외부운영 사회적가치	10점	5.9	0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5점	2.7	계량지표
									05.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5점	3.1	계량지표		
						06. 사회적회원 노력도	10점	4.8	비계량지표					
			조직운영	18점	10.7	운영의 민주성	5점	3.4	06-1. 조직내부운영	4점	2.0	-		
						근로자 지향성	13점	7.3	06-2. 조직외부활동	4점	2.0	-		
			[지표] 경제적성과	30점	17.5	재성성과	30점	17.5	고용창출/재성성과	25점	14.8	06-3. 기타(비금전적)	2점	0.8
10. 고용성과	10점	5.8										계량지표		
10-1. 유급근로자	7점	3.5										-		
10-2. 고용성장률	3점	2.3										-		
11. 매출성과	10점	5.7										계량지표		
11-1. 매출액	7점	3.4										-		
11-2. 매출액성장률	3점	2.3										-		
12. 영업성과	5점	3.3										계량지표		
13. 노동생산성	5점	2.7										계량지표		
14. 혁신노력도	10점	5.8										비계량지표		
[지표] 혁신성과	10점	5.8	기업혁신	10점	5.8	기업활동의 혁신성	10점	5.8	14-1. 과정의 혁신	5점	3.0	-		
									14-2. 혁신의 결과	5점	2.8	-		
기업수									개소	170				
14개 지표 합계									100점	58.7				
- 계량지표(11개) 소계									65점	39.2				
- 비계량지표(3개) 소계									35점	19.5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값



(단위 : 개소, 점, %)

구분	기업수	세부 측정지표별 성과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혁신성과	
		사업활동					재정성과				기업혁신	
		사회적가치		목적재투자			고용창출				활동혁신성	
		지표 3-1	지표 3-2	지표 6-1	지표 6-2	지표 6-3	지표 10-1	지표 10-2	지표 11-1	지표 11-2	지표 14-1	지표 14-2
배점	170	5.0	10.0	4.0	4.0	2.0	7.0	3.0	7.0	3.0	5.0	5.0
측정점수	170	3.0	5.9	2.0	2.0	0.8	3.5	2.3	3.4	2.3	3.0	2.8
상대비중	170	59.9	58.9	50.4	49.9	38.5	49.9	77.1	48.1	77.1	60.7	56.1

주: 상대비중: 배점 중 측정점수가 점유하는 비율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현실(설문포함)

- 측정기준표는 전국 통계 수치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위값을 대체하지 못한다
- 사회적기업 외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간 지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 경제적 성과가 좋은 기업이 사회적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행정인력 유무)
- 1년간의 사회가치실현 성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어 좋았으나,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 측정지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 비계량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수정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Q&A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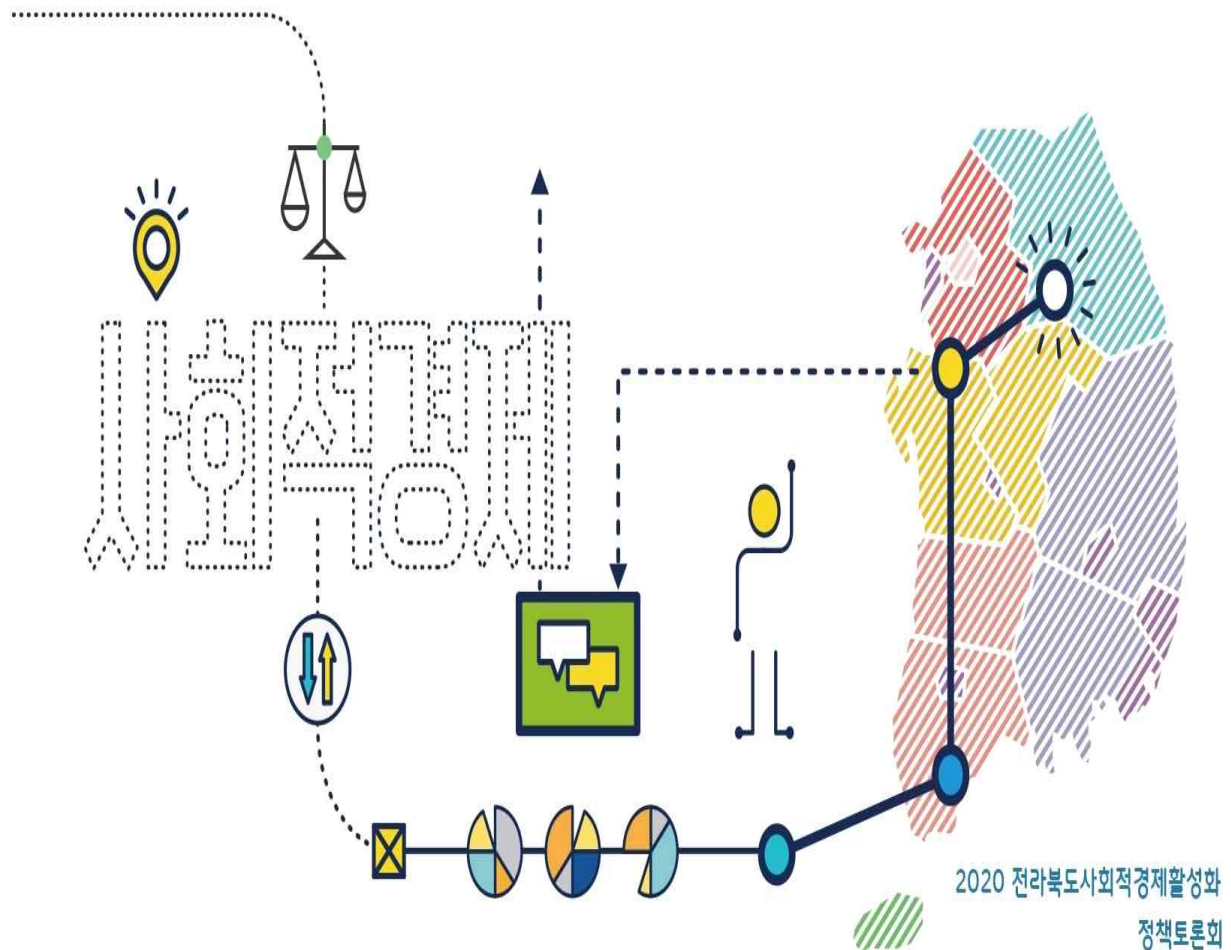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gray border. This area i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주제발제2

사회적가치지표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김현철 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2020년 12월 2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 현 철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1. 사회적가치의 중요성
2.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3. 사회적가치 지표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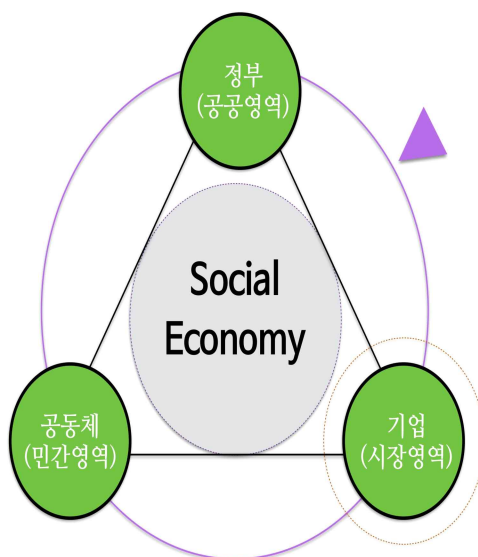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의 중요성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자료원: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2018),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에서 재인용

사회적가치의 중요성



- 자원을 공급하는 자본인프라와 사회경제적 활동의 환경적 조건들, 그리고 활동 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 관계 (CASE 2008)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정책, 제도, 기업경영 등 그 무엇에 '사회적'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의 시행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사회의 지속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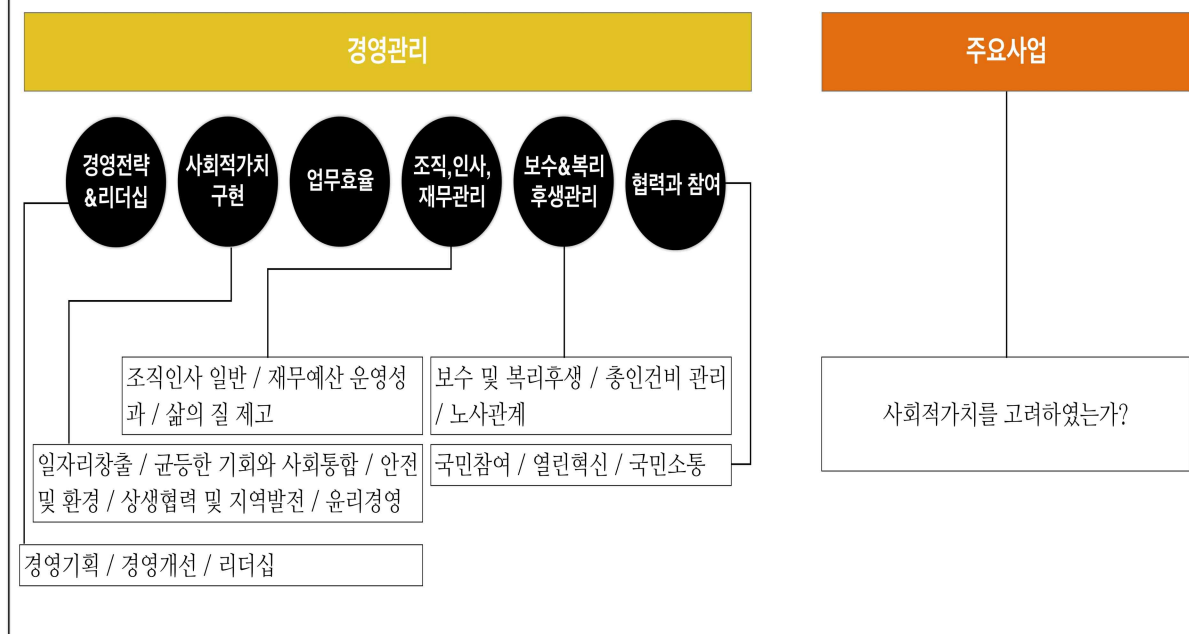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영역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 및 그 활동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 (2019), 희망제작소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지표 구조
(2017 vs. 2018)

평가범주	지표명	세부평가 항목	합계	
경영관리	경영관리합계		50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경영관리합계		18
		(1) 경영기획 및 사회적 책임	① 경영전략 수립, 국정과제 이해, 윤리경영, 내부 견제시스템 운영,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② 일자리창출, 사회공헌활동,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③ 국가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관리체계,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구축(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5
	(2) 기관경영혁신	미래 대비 및 중장기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	3	
	(3) 국민평가	고객만족도 지수, 국민제감도 조사	2	
	(4) 경영정보공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정보공유	1	
	(5) 경영정보공시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	1	
	(6) 정부관장정책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제 근무 실적,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여성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 장애인 생산품, 녹색제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	6	
	2. 업무효율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시간근로 해소, 일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노력 ② 역량개발, 여성관리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한 노력	5	
	3. 조직 및 인적 자원관리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시간근로 해소, 일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노력 ② 역량개발, 여성관리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한 노력	4	
	4. 재무예산관리		10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1) 보수 및 복리후생	고졸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개선	6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협력, 단체협약 개선	4		
주요사업	주요사업 합계		50	
가점항목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10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실적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전체 합계			100	

평가범주	지표명	세부평가 항목	합계	
경영관리	경영관리합계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경영관리합계		6
		(1) 경영기획	①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②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균형, 핵심 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여부)	2
	(2) 경영개선		2	
	(3) 리더십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 일자리창출	①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 ②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①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②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③ 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④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인력양성 및 경력 단절여성 고용, ⑤ 고졸자, 무기계약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	4	
	(3) 안전 및 환경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 ②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③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 ④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개별정의, 예방, 훼손 방지	3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① 중소기업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생산품, 재정조기집행, ②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③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④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과 구매	5	
	(5) 윤리경영	① 윤리경영체계의 구축 운영, ②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 ③ 내부견제시스템,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에 구제절차 등 인권준중	3	
	3. 업무효율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3		
(2) 재무예산 운영성과		5		
(3) 삶의 질 제고	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과 취약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②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1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2) 총인건비관리		3		
(3) 노사관계		2		
6. 협력과 참여		5		
(1) 국민참여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	1		
(2) 열린혁신	혁신과제 발굴 노력	1		
(3) 국민소통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고객만족지수 국민제감도 지수 사회적 가치 여도 지수	3		
주요사업	주요사업 합계		45	
전체 합계			100	

자료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2019), 양동수 외 5인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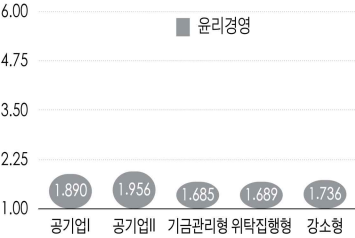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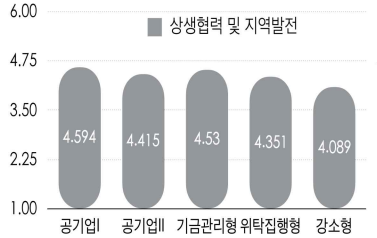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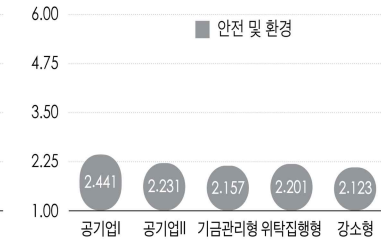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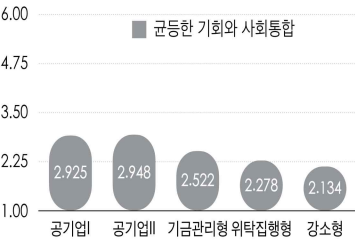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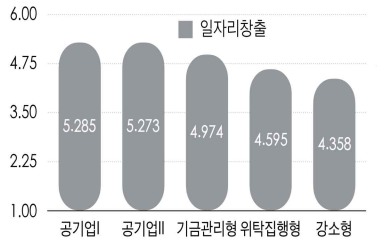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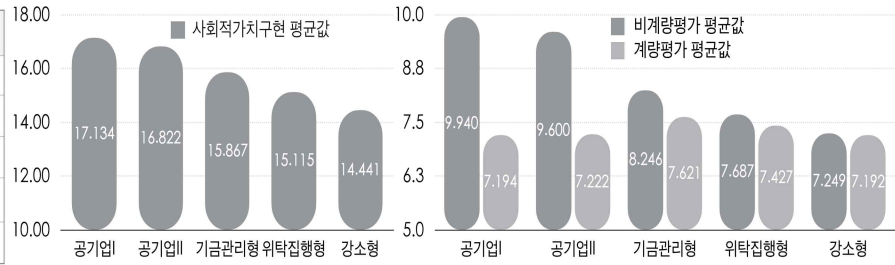
유형	지표 내용
일자리창출	계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
	비계량: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
	비계량: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안전 및 환경	계량: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
	비계량: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
	비계량: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비계량: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가중치

세부지표	공기업	기관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사회적가치구현	22	20	20
-일자리창출	7	6	6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3
-안전 및 환경	3	3	3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5	5
-윤리경영	3	3	3

2019년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가치

유형	평균	비계량	계량
공기업	17.134	9.940	7.194
공기업II	16.822	9.600	7.222
기금관리형	15.867	8.246	7.621
위탁집행형	15.115	7.936	7.427
강소형	14.441	7.249	7.192



자료분석 : 김현철

사회가치구현 우수기업의 최종 평가등급

사회가치구현	기업명	최종평가등급	사회가치구현	기업명	최종평가등급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A	위탁집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A	
	한국가스공사	B		한국관광공사	C	
	한국공항공사	B		한국국토정보공사	B	
	한국도로공사	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	
	한국수자원공사	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B	
	한국전력공사	B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	
	한국철도공사	B		한국에너지공단	A	
	한국토지주택공사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	
	인천항만공사	A		강소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
	주택도시보증공사	B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B
	한국감정원	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	
	한국남동발전(주)	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	
	한국남부발전(주)	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	
	한국동서발전(주)	B	우체국금융개발원		B	
	한국수력원자력(주)	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	
	한국중부발전	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국민연금공단	B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	
	기술보증기금	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B	
	한국무역보험공사	A	한국인문진흥재단	C		
	한국자산관리공사	B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		
			한국우편사업진흥원	A		
			한국임업진흥원	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		

자료분석 : 김현철

사회가치구현 미흡기업의 최종 평가등급

사회가치구현	기업명	최종평가등급	사회가치구현	기업명	최종평가등급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C	강소형	국제방송교류재단	C
	대한석탄공사*	E		시청자미디어재단*	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아시아문화원*	D
	한국광물자원공사*	C		영화진흥위원회	D
	한국KPS(주)	D		한국과학창의재단*	C
	해양환경공단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	D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공단*	B		한국디자인진흥원*	C
	근로복지공단	B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B
위탁집행형	도로교통공단	B		한국세라믹기술원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D		한국소방산업기술원	C
	우체국물류지원단	D		한국재정정보원*	D
	한국가스안전공사*	C		한국청소소년상담복지개발원*	C
	한국산업단지공단*	C		한국특허전략개발원*	C
	한국승강기안전공단	C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			
	한국인터넷진흥원	C			
	한국장학재단*	D			
	한국전기안전공사	C			
	한국전력거래소	C			
	한국정보화진흥원	C			
	한국도시시설공단	C			
	한국환경공단*	D			

* 매우 미흡

자료분석 : 김현철

diagonostic Index

최종 평가등급	공기업	사회적 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우수 (A)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인천항만공사	◎	◎	◎	▲	▲	◎
	한국남부발전(주)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	×
	한국중부발전(주)	◎	◎	▲	◎	◎	◎
미흡 (D)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	▲	◎	◎	▲
	한국마사회	×	◎	×	×	×	▲
	한국전력기술(주)	▲	×	▲	▲	▲	◎
아주미흡 (E)	한전KPS(주)	×	×	▲	◎	◎	▲
	대한석탄공사	×	×	×	×	×	▲

diagonostic Index

최종 평가등급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사회적 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우수 (A)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기술보증기금	◎	◎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	▲	×
	사회장학정보원	◎	◎	▲	×	▲	◎
	신용보증기금	◎	◎	▲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	×
미흡 (D)	우체국물류지원단	×	◎	▲	▲	◎	×
	축산물품질평가원	×	×	▲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한국장학재단	×	×	▲	◎	×	×
	한국환경공단	×	×	×	▲	×	×

◎ 우수·양호 ▲ 보통 × 미흡

자료분석 : 김현철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

2020 사회적가치 지표 매뉴얼

-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 (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가치 수준을 파악하여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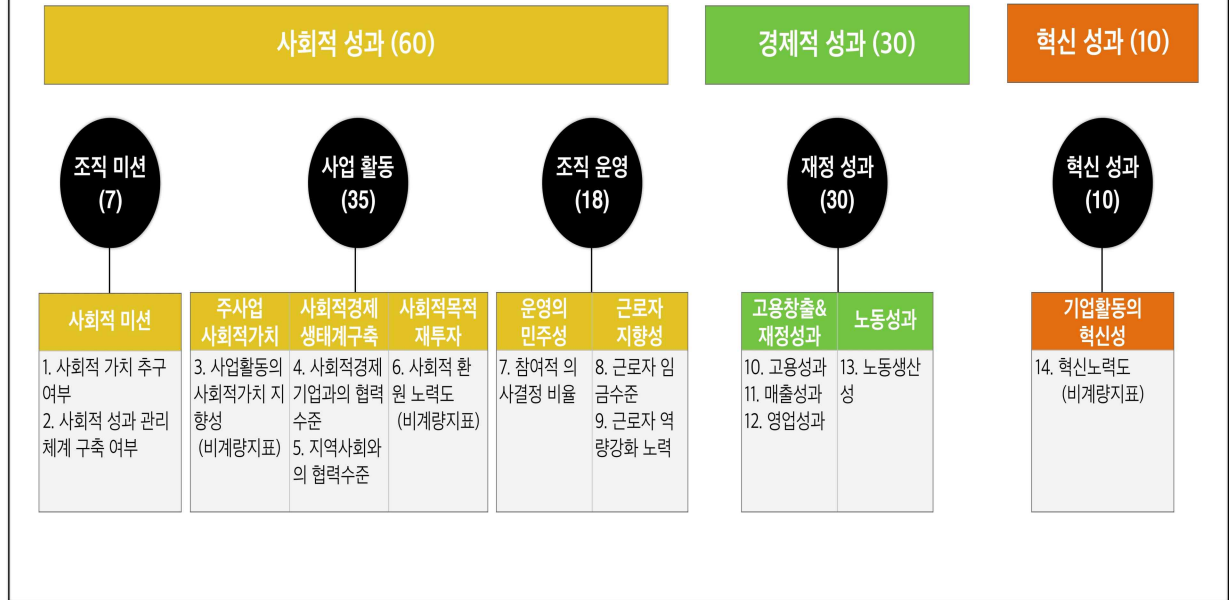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

SVI (Social Value Index)

- 지표의 주요 측정 내용: 1) 사회적 가치 : 조직 미션, 사업 활동, 조직 운영 측면, 2) 경제적 가치 : 고용창출 및 재정 성과, 3) 혁신성과 : 기업활동의 혁신성
- 1) 사회적 가치 : 대내적으로 사회적 미션의 관리, 근로자 고용의 질 증진, 기업 내부 운영의 민주성, 대외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포함
- 2) 경제적 가치 : 대내적으로는 얼마나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등이 포함 (노동생산성 등), 대외적으로는 얼마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등이 포함됨 (매출액, 영업이익 등)
- 3) 혁신 성과 : 기업 운영과정의 혁신, 제품 자체나 운영방식 등 사업의 전영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혁신성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측정치표	평가방법	측정방법	평가내용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계량	유/무	유(5점), 무(1점)
2.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계량	5등급 평가	측정기준, 담당인력, 평가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내 공유 중 5가지 구축 (5점)...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5등급 평가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5점), 제품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5점)
4.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수준	계량	5등급 평가	사회적 경제 협력 활동 (토론회, 정기 교류회 등)의 횟수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계량	5등급 평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등과의 공식적인 협력 활동 (MOU 등) 횟수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5등급 평가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4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4점), 조직의 역량활용 (2점)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계량	5등급 평가	기업들에게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8. 근로자 임금수준	계량	5등급 평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계량	5등급 평가	
10. 고용성과	계량	5등급 평가	
11. 매출성과	계량	5등급 평가	
12. 영업성과	계량	5등급 평가	
13. 노동생산성	계량	5등급 평가	
14. 기업의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비계량	5등급 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구조

[사회적가치 지표 평가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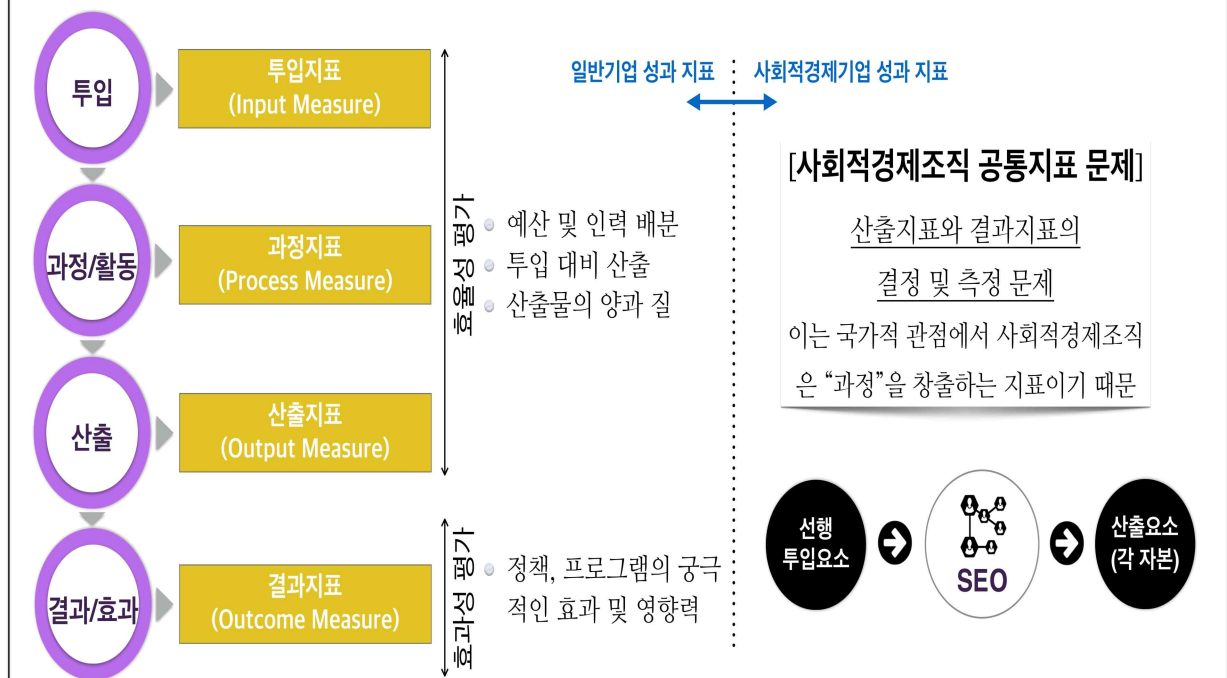
지표의 적의성과 적용성

- 모든 사회적가치 지표가 모든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의미를 가지며 적용 가능한가?
- 모든 사회적가치 지표가 서로 다른 목적의 기업활동에 적합한 의미를 가지며 적용 가능한가?

지표의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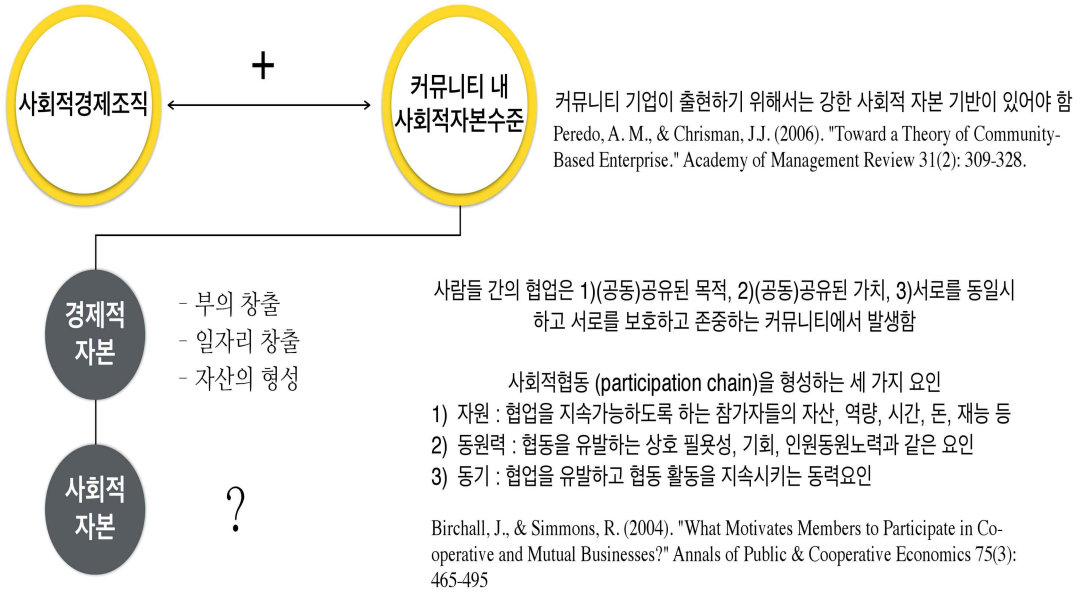
- 사회적가치 지표 내 평가요소들의 수준이 다름으로부터 기인하는 편익은 없는가? (MOU vs. 프로젝트형 협력사업)
- 사회적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자로부터 기인하는 편익은 없는가?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고정된 평가위원들을 배치함으로써 ‘평가자가 다름’ 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최소화 하려 함)
- 평가값의 배분 (가중치)이 객관적인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 모든 사회적가치 지표의 정량화가 객관적인가? 즉, 기업 간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가?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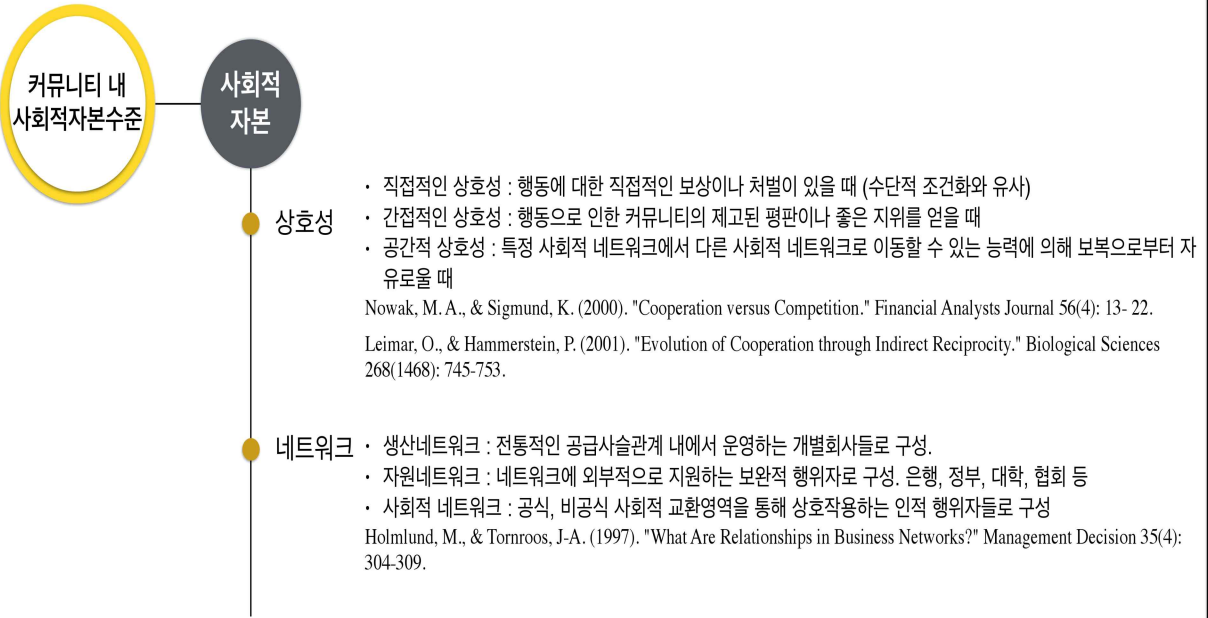
Birchall, J. (2011). *People-Cent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Lond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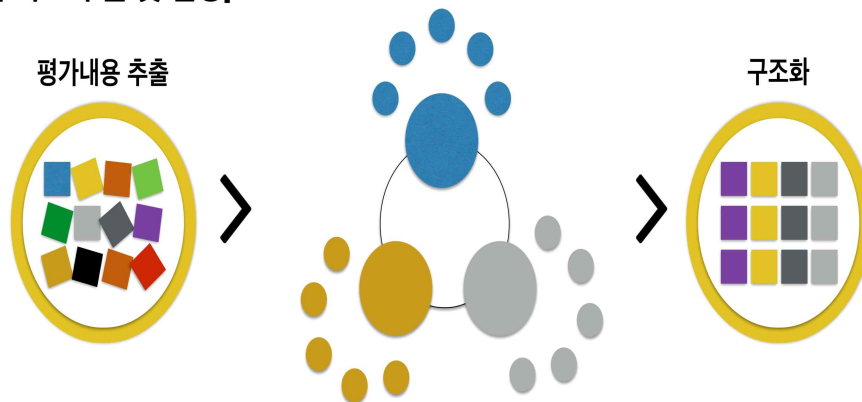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사회적가치 지표 추출 및 설정]

평가내용의 개념화/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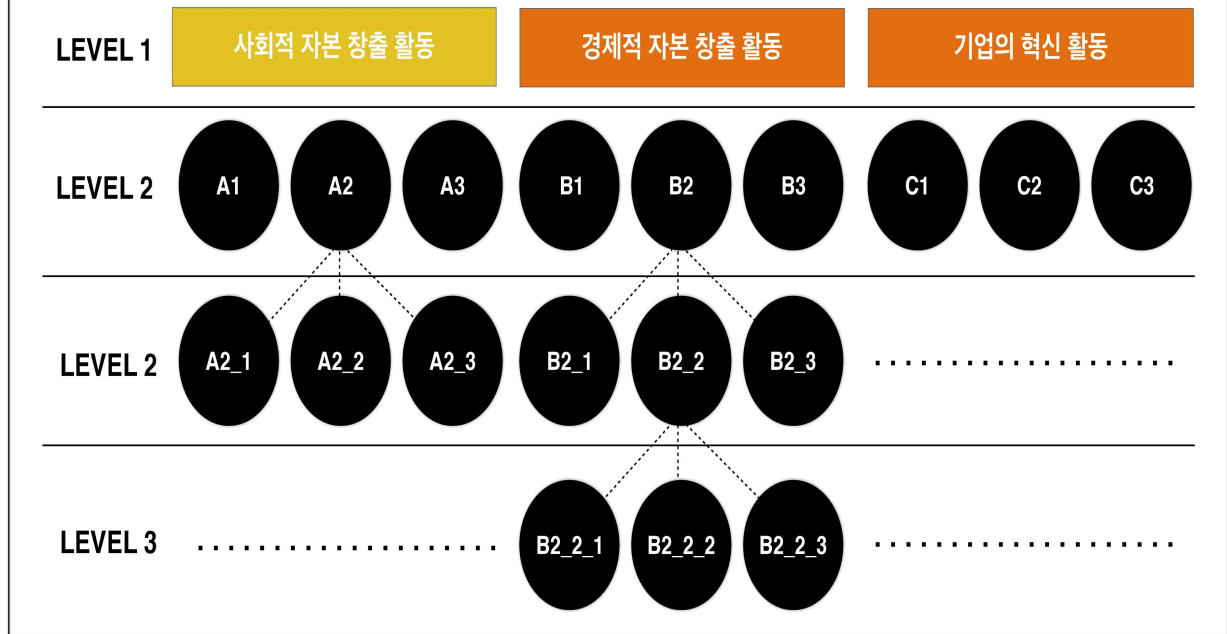


정성적 문제의 정량화를 위한 의사결정구조화

※ 구조화 시 같은 레벨의 지표는 특성이나 내용측면에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함

정량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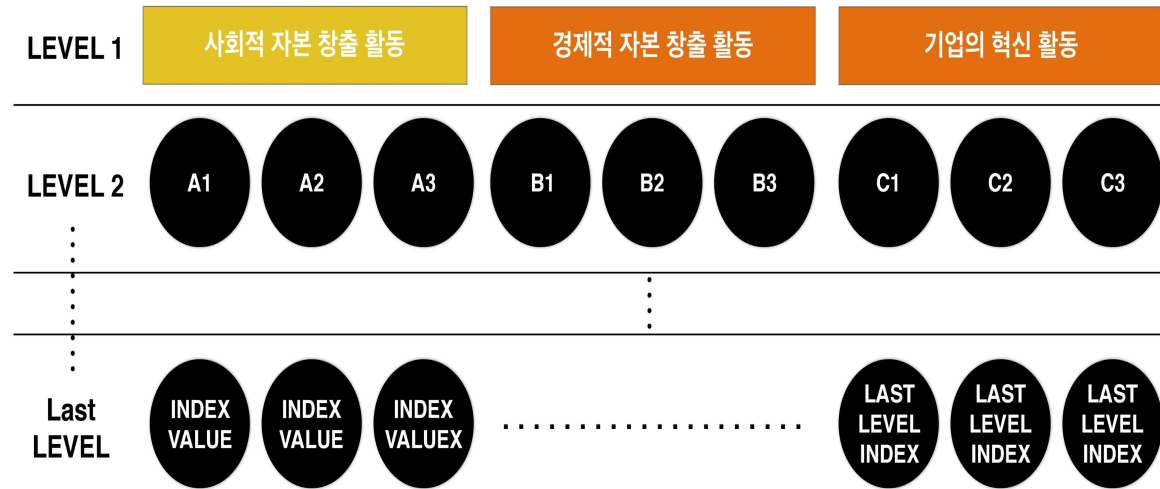
지표의 설정

- 현재의 SVI 해부 → 평가내용 추출
- 기 조사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분석 → 평가내용 추출
- 사회적경제기업의 합의 도출 → 평가내용 추출
- 평가내용 → 후보 지표 추출 (충분하게 도출)
- 후보 지표를 지표군으로 분류 → 지표 유형화
- 유형화 된 지표를 상하위 수준으로 분류
- 분류된 지표의 독립성 검증
- 지표의 정의 및 내용, 증명 방법 확정 → 당사자조직&전문가 등 합의
- 파일럿 테스트 → 당사자조직&전문가 등 수정 및 합의 → 지표 확정

※ **유형화된 지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두어 사회적 목적이나 기업의 업종별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지표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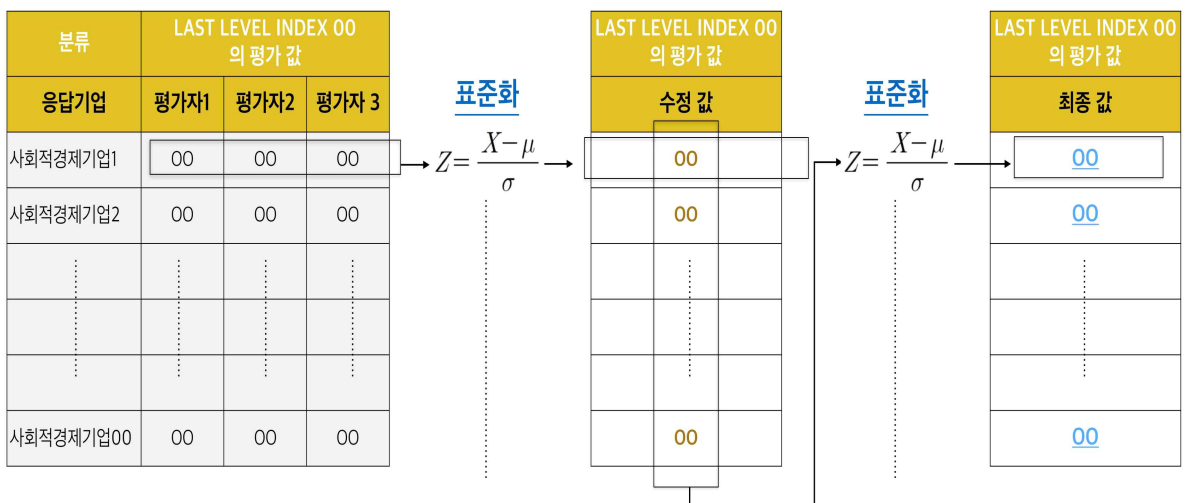


※ 마지막 수준의 지표에 대한 평가 (다면 평가)로 측정된 값은 100점 만점 등의 척도로 평가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지표의 평가값 표준화

예) 마지막 지표 중 하나의 지표 / 3명에 의한 다면평가로 가정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가중치 추출

- 객관적인 가중치 도출 방법으로 AHP 방법 등을 제안 (이행성 원리에 의한 응답자의 일관성 검증)
- 각 레벨의 지표를 쌍비교 함으로써 가중치 도출
-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도출
- 업종별 또는 규모별 또는 사회적 목적 유형별로 가중치 차별적 적용 가능

AHP 공리	
이원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자의 두 대상에 대한 이원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이 중요성의 정도는 반드시 역조건을 성립시켜야 한다 즉, A가 B보다 X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배 중요시 되어야 한다
동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성의 정도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기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언

SVI 지수 도출

- global weight, local weight, last level index 최종값 가중합산

-SVI : 사회적가치 지수

- w_i : 상위요인 i 에 대한 가중치 $\sum_i w_i = 1$

- w_{ij} : 하위요인 (ij) 에 대한 local weight $\sum_j w_{ij} = 1, \forall_i$

- v_{ij} : 하위요인 (ij) 에 대한 global weight

$$v_{ij} = w_i w_{ij}, \sum_i \sum_j v_{ij} = 1$$

- X_{ij} : 상위요인 (i, j) 의 만족도

- Y_i : 하위요인 i 의 만족도, $Y_i = \sum_j w_{ij} X_{ij}$

주요인	중요도(w_i)	세부요인		SVI 지수 (X_i)
			중요도(w_{ij})	
A	0.414	A1	0.214	66.33
		A2	0.232	64.89
		A3	0.554	63.89
B	0.202	B	0.199	58.06
		B	0.157	62.67
		B	0.212	63.61
		B	0.122	56.39
		B	0.136	59.22
		B	0.174	64.11
		B	0.174	64.11
C	0.384	c	0.437	62.11
		c	0.563	61.11
SVI 지수 ($\sum_i \sum_j w_i w_{ij} X_{ij}$)				<u>62.71</u>

지정토론

지역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방안

- **지규옥**센터장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이근석**센터장 완주소셜굿즈센터센터
- **김창균**센터장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김창환**센터장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 **한명재**센터장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토론 01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중간조직의 역할

지규옥 센터장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

올해 행정감사 기간에 소관위원회 시의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음.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확인 전화임.

사회적기업은 정책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 사회적기업은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가치 측정은 사회적기업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데 필연적 과정임.

문제는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일반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임. 이들 영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래서 이들 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구축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 기업 입장에서의 사회적가치 측정의 효용

사회적가치 측정은 외부적 평가를 넘어 기업 내부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님.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 이념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임. 이는 기업의 변화와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함.

또한, 사회적가치 측정 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내부 교육 기회가 됨.

기업은 이러한 누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효용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매우 중요함.

2008년부터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사회적 회계와 사회적 회계 감사(SAA : Social Accounting & Audit)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시작함. 사회적 회계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고, 그것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의 지속적인 조절 과정임(김유숙, 2019). 2018년까지 10여 년간 사회투자지원재단을 통해 사회적 회계 컨설팅을 받은 조직 55개소 중 현재 22개 조직이 사회적 회계를 활용하고 있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 지표(SVI)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음.

전라북도에서도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음.

○ 사회적가치 측정의 과제

먼저, 사회적가치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접할 수 있어야 함.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 사회적가치 지표에 대한 교육과 우수 기업 사례 공유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전북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토론회**

지정토론 02

완주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방안

이근석 센터장 완주소셜굿즈센터

지정토론 03

익산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방안

김창균 센터장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

간지원조직의 입장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의 환경에서 바라보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 지표 관점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 3가지 관점의 각각 배점 비중이 사회적 성과 60, 경제적 성과 30, 혁신 성과 10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성과 비중이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적 성과를 얻기도 전에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적 성과 비중이 50을 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가치지표 관점 중에서 경제적 성과 관점의 측정 지표를 살펴보면 4가지 항목입니다. 고용성과, 매출성과, 영업성과, 노동생산성 입니다.

측정 지표의 내용이나 성격이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유사한 범주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적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 구성이 아쉬운 거 같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반면, 지원 예산은 같은 걸음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한번이라도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비지정 2년 인증기업 3년, 5년 기간 동안에 지원사업에 한번이라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성과 측정 지표에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나 참여 정도, 참여 횟수 등을 측정 지표로 개발 개선하여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가치지표의 활용 목적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사업 및 기업선정 시 사회적가치 측정 도구로 직접 활용 또는 심사 참고자료로 간접 활용되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측정치표의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계량지표의 배점과 비계량 지표의 배점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비계량 지표의 배점과 계량지표 배점이 2배 이상 차이가 남으로 해서 보편성과 형평성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14개 측정지표 중에서 비계량지표 수는 3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배점 비중에서 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계량 지표의 배점 비중과 지표 내용의 세분화 통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현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율경영 공시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자율경영공시가 의무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coop index를 자가 진단용과 외부 평가용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동조합 경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러한 자가진단과 평가과정을 거치고 자율 경영공시를 경험하였을 때 사회적가치 지표의 활용도 진정성이 발휘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북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토론회**

지정토론 04

전주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방안

김창환 센터장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정토론 05

진안지역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방안

한명재 센터장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회적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내부점검을 통해 시민대중, 혹은 사회, 문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더욱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명을 통해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라고 본다. 이러한 지표측정이 중요해지게 된 것은 사회적경제의 재정지원의 정당성, 즉 예산의 적정성과 공정한 집행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고 사회적가치 평가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나아가는데 있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를 파악하여 사회에 기여한 정보를 통해 조직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신뢰성과 형평성, 그리고 이론적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앞으로 논의되고 소통하며 문제를 극복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치지표의 측정이 특정지역, 특별히 농촌기업과 취약계층과 서비스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기업에 적용가능한가의 문제이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가치지표의 농촌기업의 보편적 적용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시한 가치지표는 3개관점(사회적, 경제적, 혁신의 성과)과 14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지표가 농촌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은 사회적미션이나 민주적운영의 협동조합적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하나 인구과소화 현상(고령화)으로 질 좋은 자원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취약계층과 서비스부분)에만 집중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가치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다보면 고용인원의 적고 매출이 적은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 평가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평가측정에도 낮은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며, 농촌지역과 같은 지역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대한 ‘좋은 일자리’는 평가되는가?

사용되는 가치지표는 사회적 성과의 관점에 조직미션, 사업활동, 조직운영의 범주 중 조직운영에서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제외되어 있다. 농촌에서의 사회적경제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기업의 자본을 탈피, 인간중심의 경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은 도시와 비교할 때 임금의 격차가 심하고 결국 임금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농촌에 남아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지표가 현행 지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현재의 지표측정에 더하여 기본적으로 효율성 이전의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로서의 주관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Q방법론-1935년 물리학자이자 심리통계학자인 William Stephenson(1902~1989) 등)

■지표평가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양성

지표평가에 대한 농촌중간지원조직의 이해도가 낮아(진안에 한함) 이 평가측정을 위해서 지원조직의 측정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다. 지원조직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디자인을 할 때 사전 작업을 통해 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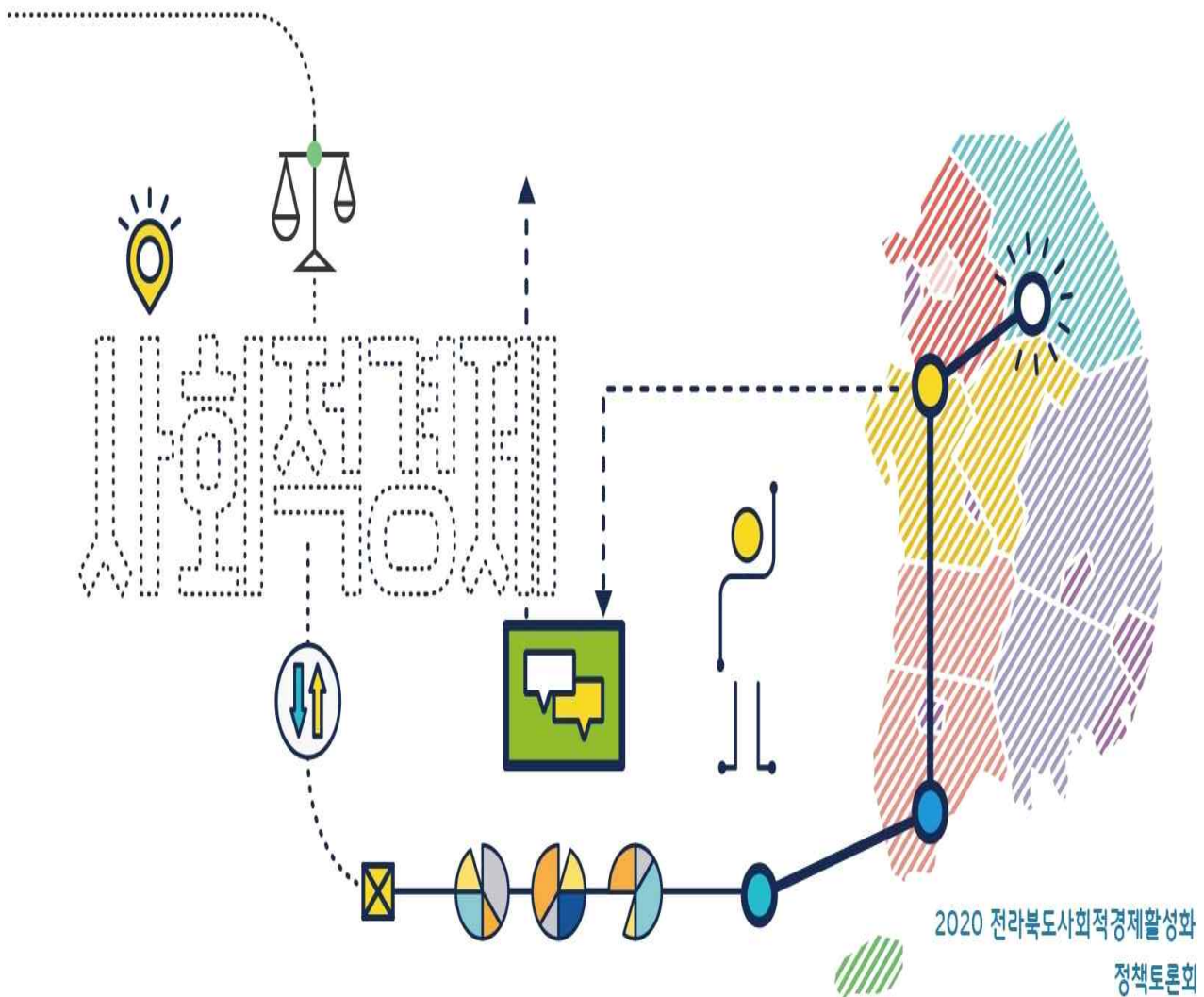
-측정지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성을 살려 효율성측정의 기재로서의 측정지표가 아닌 사회적경제가치 확산을 위한 측정지표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근로자들이 돈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질’을 통해 사회적경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가치측정의 기재가 필요하며 이들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확산을 기대해 본다.

전북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토론회

종합토론

사회적가치지표 정책 및 활용 방안





참고자료

-
-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
 -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경제 역할
-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¹⁾

강경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장

1. 사회적 가치 평가에 쏠리는 관심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개발·공표(2017년 7월)한 지 2년이 지났다. 지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지표 개발 연구나 평가 활용 등에 대한 문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 기관에 지표 연구 및 사회적 성과 측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평가 프로그램, 공공·민간기업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에 사회적가치지표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일반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저마다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상이한 수준의 사회적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 애쓴다. 더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성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새로운 달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려면 전담 인력 확보 등의 행정 부담을 안아야 한다. 실제로 ‘인증사회적기업 중에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있는 곳’은 32.9%였다.(‘2017년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2.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과정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KAIST(2010년), 부산대학교 조영복 교수(2011년), 한밭대학교 이준우 교수(2012, 2015년),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2013,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길현종 박사 등으로 구성된 TF팀(2016년)은 연구 과정에서 매년 진전된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왔다. 7년에 걸친 이 사업의 성과에는 자치단체, 민간기업의 공동 노력도 뒷받침됐다.

연구 관점과 성과 내용은 다양했다. 우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됐다. 화폐적으로 환산하는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를 개발하려는 연구도 있었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목적 11가지를 섹터별로 총 706가지의 측정 지표를 도출하기도 했다. 지표 활용에 있어서도 필수, 권고, 자율 지표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고, 사회적기업을 일정 분야로 구분하는 방식과 전체 사회적기업을 하나의 통일된 지표로 측정하는 방안이 달리 제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기업의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의 추상성으로 인한 것이다.

연구 성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됐으나, 지표의 실제 활용은 계속 미뤄졌다. 측정과 평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재하거나 현실적인 지표 운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부 측정 지표의 타당성 근거와 치밀성이 미약하여 적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7년 7월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지표 개발을 공표했다. 그동안 일반 기업의 성과가 주로 매출,

1) 이 자료는 계간 『생협평론』 2019 가을 36호에 실린 기재된 원고임. -편집자 주

영업이익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면,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14개 세부 측정지표(계량 11개 + 비계량 3개)로 구성된 이 지표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하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특히 성장기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정부 재정 지원(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 개발비 사업 등)에 지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모태펀드 투자 대상 선정, 크라우드펀딩 대회 심사 기준 등에도 적용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표〉 사회적가치지표(SVI) 모형

관점	범주	영역	측정 지표	배점	측정 방법/ 기준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계량 / 유무 확인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계량 / 5등급
	사업 활동 (33)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	비계량 / 5등급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준	4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4	계량 / 5등급
	조직 운영 (20)	사회 목적 재투자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비계량 / 5등급
			운영의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 수준	10	계량 / 5등급
			9. 근로자 역량 강화 노력	5	계량 / 5등급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 창출 및 재정 성과	10. 고용 성과	10	계량 / 5등급
			11. 매출 성과	10	계량 / 5등급
			12. 영업 성과	5	계량 / 5등급
	노동 성과	13. 노동 생산성	5	계량 / 5등급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혁신성	14. 혁신 노력도	10	비계량 / 5등급
계		14개 지표		100	-

3. 사회적가치지표의 특성

사회적가치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세부 지표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지표 등과 같은 일반적인 평가지표는 측정 대상의 변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가치지표는 지표의 정의나 측정 방법, 측정 기준, 계산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일부는 작성 예시를 제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지표의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측정 범주에 조직 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도와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 증대를 가속화하는 성과 요인, 즉 인적·조직적·외부 환경적 요인도 함께 측정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기업이라면 마땅히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미션을 공표해야 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지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회적 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내부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 기준을 설정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담당 부서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 결과를 내부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적기업은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4. 사회적가치지표 개발의 필요성

사회적가치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사회적기업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우선 내부적인 요구는 사회적 성과 관리 측면에서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사회적기업이 2,000여 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개별 기업 차원의 성장도 이뤄지면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전략적 활동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사회적기업은 보다 높은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려 한다. 그렇게 실현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기업가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점이다.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가치지표는 일종의 ‘내비게이터’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사회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 정보를 분석하여 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표 개발 수요는 사회적기업 외부로부터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2012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부터다. 하지만 이미 2010년부터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한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지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어왔다. 지표 개발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또는 투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투자자는 각종 지원 및 투자의 사전 타당성과 사후 성과를 측정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지원의 효율적배분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초기에 민간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를 일부 개발했으나, 데이터의 부재와 현장의 측정 부담, 측정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지원 사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 보상을 연계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5. 사회적 가치라는 ‘애매한 덩어리’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다 보면 모호한 상황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이때 사회적 가치는 한마디로 ‘애매한 덩어리’다.

돌이켜보면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과정은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하는 과정 그 자체다. 지표 개발을 논의하던 초기엔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한 관련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표준화기구^{ISO}나 UN, EU 등 국제기구들이 사회적 가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표준화된 측정 기준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가치의 범주와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는 빈약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이나 서비스에 관한 조사 자료는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성과 관리 현황이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지향성,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 참여적 의사결정 현황 등의 본격적인 조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목적 각 분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현실 변화와 밀접하여 시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높은 지표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조직 형태와 업종이 같더라도 사회적 미션이 다르고, 지역 환경이 다르며, 업력^{業歴}이 다르다. 지표 측정 기관들은 항상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풀기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한다. 하나는 측정 기준의 편리성이고, 또 하나는 측정 대상의 수용성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보인다. 단순하고 명확한 지표일수록 수용도는 떨어지고, 수용도를 높이려 할수록 지표는 복잡해진다. 측정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이 더 크다.

6. 지표 정교화 과정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단계부터 지표의 지속적 정교화를 염두에 두어왔다. 즉, 지표 운영 중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다시 현실에 적용하면서 이해관계자의 환류를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주기적으로 지표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 워크숍뿐만 아니라 측정 참여 기업, 전문가,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했다. 지표 활용 결과와 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표 개선 방향은 객관성, 현실성, 형평성,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토 안을 통해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객관성 제고를 위해 비계량 지표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착안 사항을 도입하고 구조화된 판단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과 임금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추가했고, 불분명한 판단 기준은 단순 명료하게 제시하여 수용성을 높였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을 재조정하고, 증빙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표별 기준 표를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재구성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근로자 임금 수준의 판단 기준을 시급 체계로 변경하고, 경제적 성과의 판단 기준에 성장률 개념을 추가하여 업종별, 기업 규모별, 인증 유형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측정자 및 참여자가 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작성 양식과 예시를 제기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안이 검토됐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정교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지표 수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와 소비자의 의견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는 지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측정 실사와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전산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성과를 명징하게 표현하는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과를 표현하는 ‘이윤’처럼, 보편적이고 명징한 측정 방법론을 고민하여 사회적 경제의 스토리를 강화해야 한다.

7. 성과와 과제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가치지표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지표 체계상 3개의 관점(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과 14개 지표의 타당성이 점차 확인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이고, 사회·경제 생태계 활동의 주요 결과이자 핵심 동기이다. 사회적가치지표에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조직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 측정토록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를 살피고, 외부적으로는 고용 성과, 매출 성과, 영업성과를 통해 사회 경제에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의 혁신 성과는 사회적 성과와 더불어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혁신성을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사회적가치지표는 경영 과정의 혁신(제도 개선 노력, 전문 인력 도입, 사내 제안, 시스템 개선, 시장 기술 분석, 연구 개발 투자 등)과 혁신의 결과(신상품 도입, 고객 만족도, 자원 절감, 이용자 수, 기술적 성과, 혁신 제품 등)를 통해 혁신 노력도를 평가한다. 관점별 배점(총 100점, 각 관점별 60:30:10)과 지표별 배점(2~15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표의 모형과 프레임, 내재된 가치와 관점, 측정 기준과 방식 등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현장과의 교감을 통해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가치지표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제고를 촉진하는 역할과 사회적 가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사회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표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속적인 지표 고도화와 운영 체계화가 필수적이다. 지표 적용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미 사회적기업 제도 변화에 따른 지표 개선 논의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가치지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과 금융 및 판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운영위원회’도 구성된다(‘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센터’가 설치되면 사업 목적별 측정 방법을 고안하고, 이와 함께 측정 대상별 지표 개선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측정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풍부히 축적될수록 현실 정합성과 현장감 높은 지표 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험 및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평가 요원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측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 요원은 측정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상담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지표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회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밖에도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지금의 핵심 지표 이외에도 사회적 목적 또는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특화된 지표가 고민되어야 한다. 사회적 금융 시장이나 정부 조달 시장, 위탁서비스 시장, 기업의 소모성 자재 시장 등을 겨냥한 보조 지표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²⁾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코로나19가 시작되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5개월을 넘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로 퍼져 27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공장·기업·학교·시장 등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멈춰 섰다. 사람들이 넘치던 거리도 텅 비고, 상가는 문을 닫았다. 근 3개월 남짓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경제인들 모두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는 더 가중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들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 충격 속에서 정부는 신속히 고용안정지원금, 세제 혜택, 정책자금 등의 많은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턱없이 낮다.

이 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월 19일부터 5월 중순까지의 대구 사회적경제의 대응에 대해 기술한다.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이 재난의 시작을 사회적경제인들은 어떻게 ‘함께’ 대응했는가를 기술할 것이다. 어떠한 평가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매듭 하나짓는다는 생각으로 정리해본다.

대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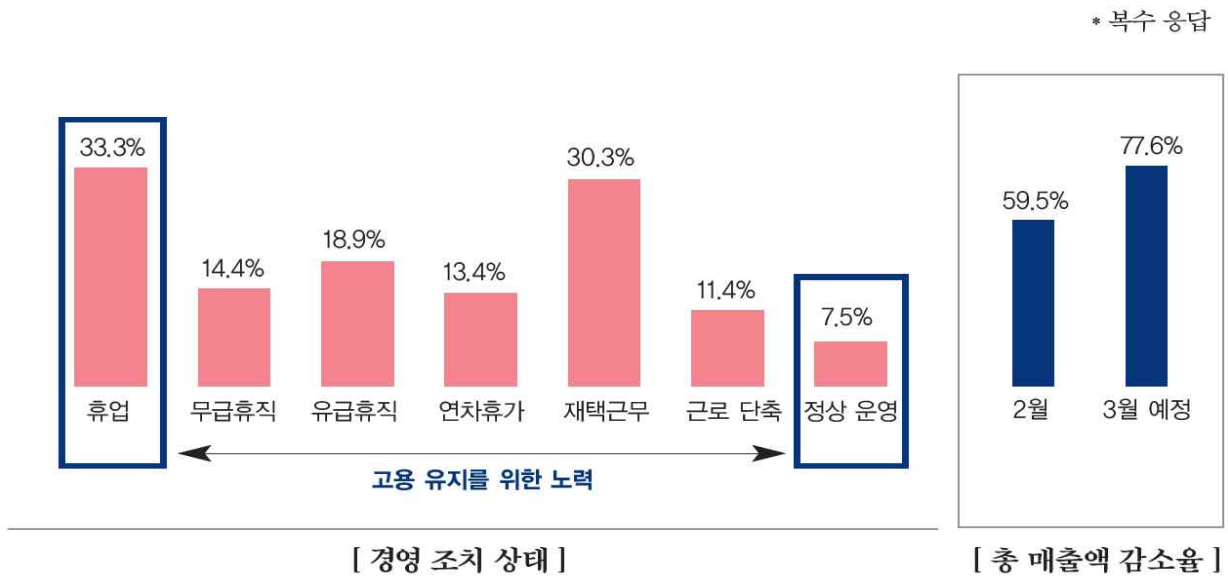
대구는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출신 신천지 환자의 무더기 전파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립무원 지역으로 전락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15일까지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고, 대구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악화되는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경제인들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초기에는 시민들 모두 잠시 지나가는 폭풍처럼 생각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인들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대구 부문·지역별 협의회와 논의해 3월초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긴급히 실태조사(3/3~3/8)에 착수한다. 총 80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문지를 작성해 피해 규모, 경영 조치 현황, 지원정책 우선순위, 긴급사용자금의 필요 정도와 우선순위, 건의 사항, 미담 사례 등을 파악했다. 총 203개 유효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2월 말을 기점으로 약 92.5%가 휴업 또는 고용조정을 통한 경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정상 운영은 7.5%에 불과했지만 재택근무(30.3%)를 포함하여 무급휴직(14.4%), 유급휴직(18.9%), 연차휴가(13.4%), 근로시간 단축(11.4%)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 비해 서비스업이 휴업(39.5%)과 재택근무(36.1%) 조치를 가장 많이 실행했으며, 정상 운영은 5.9% 정도밖에 되지않았다.

2) 이 자료는 계간 『생협평론』 2020 여름 39호에 기재된 원고임. -편집자 주

〈그림〉 코로나19 이후 대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조치 상태와 매출 피해 실태



출처 : 「2020년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피해 현황을 보면, 대구 전체 사회적기업의 2월 매출액 평균 감소율은 63.5%이며, 예상되는 3월 평균 매출액 감소율은 84.2%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예상하는, 전체 기업의 총 매출액 평균 감소율을 보면, 3월 중에 제조업(43개사)이 83.4%로 가장 큰 폭의 매출액 감소를, 다음으로 서비스업(120개사)이 77.4%로, 전체 업종 모두 3월 매출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기업의 납품/용역 계약 취소 총액은 2월 20억 1,008만 원이었으며, 3월까지 지속되면 30억 16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커져 향후 1년간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³⁾

사회적경제인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들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신속하게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부처에 당면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민관 공동으로 긴급 제안을 했다.⁴⁾

제안의 내용은 ①기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지원(인건비와 임대료) 필요, ②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자금 필요, ③서비스 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59.5%)하여 33.3%의 기업이 휴업에 들어갔고, 유급휴직, 연차휴가 등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출 부담을 줄여 즉각적인 경영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정책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근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수익 구조나 대출 상환능력 등의 기업 평가를 통해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은 늘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데 있었다. 취약계층 고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정책자금 선정 시 기업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업계에서는 당연시했다. 이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거나, 특징적인 사회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정책자금이 긴요한 상황임을 기술했다.

3)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2020년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4)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코로나 이후 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응 현안」.

마지막으로는 대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서비스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었는데 제안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구 사회적경제기업은 대구광역시의 산업별 분포와 유사하게 서비스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휴업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었다. 정상 운영의 비중이 매우 낮고, 차후 납품/용역 등 계약 취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업 경영은 물론 고용 유지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내 일반적인 취약계층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내 취약계층근로자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 식품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등으로 사회적경제 서비스 업종에서 이를 소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바우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비 진작 및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상승으로 경영 상황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했었다.

민들레 흠씨처럼 이웃을 돌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의 위기도 크게 다가왔다. 2018년 기준 대구 사회적기업은 평균적으로 총 근로자 수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47.8%로, 기업별로 약 3,300여 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⁵⁾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의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겨우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 있던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금 움츠러들게 될 것은 명약관화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경제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기업적 손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위해 가까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위로와 응원을 보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초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지난주보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도시락이 모자라 빵과 음료를 돌리고 마스크를 돌렸습니다. (...) 이렇게라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느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준비한 도시락이 모자랍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받아 온 빵봉지 꾸러미가 있어 그것으로 돌리는데 그래도 딱 한 사람이 빈손이었습니다. 그 빈손 앞에 저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지난 2월 26일 대구마을기업협회 밴드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건축·목공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온 ‘다울협동조합’의 대표였다.

‘다울협동조합’은 2월18일 이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염을 우려해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자, 가장 먼저 도시락을 들고 대구역 뒤편 광장으로 나섰다. 도시락 50개가 70개가 되고, 100개, 120개가 되는 동안 노숙인지원센터는 물론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우렁이밥상 협동조합’, ‘달콤한밥상 협동조합’, ‘아가소잉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손을 보탰다. 장소는 반월당 네거리와 동대구역으로 확대되었고, 후원 물품도 마스크, 손소독제, 간식 등으로 다양해졌다.

5) (사)커뮤니티와경제 (2019). 「2019년 대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디자인 업체인 청년 마을기업 ‘레인메이커’는 이런 활동을 영상으로 옮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노숙인뿐만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들은 너도나도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아가쏘잉 협동조합’은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재사용 가능한 천마스크 600개를 제작해 달서구의 복지관과 이주노동자센터에 공급했고,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을 위해 위 생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키트 12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 해 설립한 ‘보기공방협동조합’은 수제 마스크 200개를 동구청에 전달했고, “기부도 중독인 듯하다”며 안심 종합복지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행복주택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500여 개의 면마스크를 추가로 지원했다. 신세대 감각을 살리며 동네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달콤한밥상 협동조합’은 자원활동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간 동구의 장애우들에게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했다. 이러한 활동을 옆에서 본 회원들의 선행도 이어졌다. ‘달콤한밥상’의 한 회원은 자가격리 장애우들에게 보내는 도시락에 손 소독제를 함께 보냈고, ‘동네책방협동조합’ 내 독서일기 클럽에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까?’라고 자문 하면서 의료진에게 음료와 위생품을 보냈다. 월 매출 1억 원이 넘는 ‘청소하는마을’은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취약 지역인 복지관, 어린이집, 청년 카페 등 20여 곳의 전문 방역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수제 떡을 제조·판매하는 힐링떡공방 ‘(주)콩지팥 지’는 동산병원 의료진 앞으로 영양떡 200개와 더치커피를 보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반찬배달사업 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설립한 ‘(주)새벽수라상’은 3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대구의료원에 하루 30인 분의 도시락을 배달했고, 이후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달서구 세강병원으로 도시락을 배달했다. ‘동네책방협 동조합’은 동네 인근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세탁이 어려운 의료진을 위해 남녀 양말 1,000켤레와 위생장 갑, 세면도구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타국에서 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있었다. 성서공단 인근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라 디오방송국 ‘(사)성서공동체FM’은 코로나19 특별방송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기증받아 이주노동 자센터로 보냈다. 2월과 3월에는 모든 마스크가 품귀였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구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경 우, 마스크가 없으면 취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성서공동체FM’을 통해 지원받은 마스 크를 갖고 있던 덕택에,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당시 의료 지원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의료진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내놓은 기업도 있다. ‘(주)공감씨즈’라는 사회적기업이다. ‘공감씨즈’는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3곳 중 2곳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무상으로 내놓았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15명까지 투숙하도록 제공했고, 총 50일간 564박을 제공했다. 사실 대구는 코로나19 대량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대구까지 온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모텔 같은 데는 숙소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건 뭔가 고민하다가”⁶⁾ ‘(주)공감씨즈’가 나선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수년 전부터 공감씨즈와 교류하던 일본 민간팀도 후원을 했다. 후원품은 추어탕, 곰탕, 홍삼, 방역용품, 스트레칭기구 등 다양했는데, 의료진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탁, 식사 등 생활 지원에 투명하게 사용했다. ‘(주)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 하면서 대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대구를 알리는 일을 하는 여행·관광·숙박업을 하는 기업이다. ‘(주)공감 씨즈’도 이번 코로나의 타격을 적잖이 받았다.⁷⁾5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 동안 영업을 못해서 5,000여만 원

6) 매일신문 (2020.3.3),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22918323452027>.

7) 지난 3월 아시아개발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매출 감소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적자를 보고 있고, 직원들은 절반의 월급을 반납하는 등의 경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공감씨즈’의 대표는 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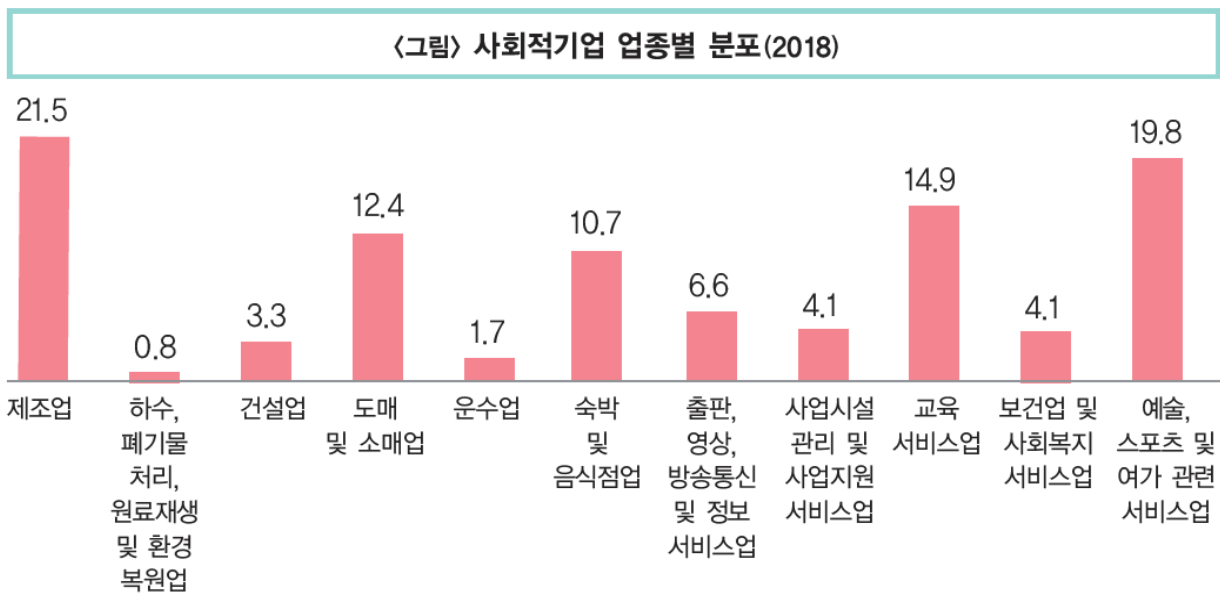
코로나로 우리 기업은 간부들 급여 30~50% 삭감, 무급휴직 3명, 게스트하우스 스텝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며 버텨가고 있다. 다행히 지난 7년간의 작은 역사를 통해 구성원들을 평가해서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고통을 나눠 지는 방식으로 고난 극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급여가 반으로 줄고 근무시간이 반으로 주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해고 아닌 해고의 상황이 오겠지만 이러한 고통 분담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며 새로운 매출 확대를 위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극복해보자는 우리 기억 속의 긍정의 DNA를 불러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⁸⁾

‘(주)공감씨즈’처럼 크게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업계도 연대의 행동에 나섰다. 모임이 취소되고, 행사들이 연기되면서 대구 문화예술 분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⁹⁾ 재능 기부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시작은 ‘대구소셜캠퍼스 온’에 입주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MS엔터테인먼트’와 ‘(주)컬처팩토리아지트’가 대구·경북 시·도민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을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에 제안하면서였다.

‘힘을 내요, 그대!’ 프로젝트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대구·경북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8개사 14개 뮤지컬 팀이 참여, 퓨전음악, 팝페라, 인디밴드, 트로트, 재즈, 합창단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 간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들은 시간대별로 구분해 노래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했고, 유튜브로 음원과 영상을 공개했다. 희망 가득한 가사와 멜로디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이밖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인 ‘(주)희망정거장’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을 무관객 콘서트로 3번에 걸쳐 열면서 온라인

8) 허영철 (2020.4.7.). 「우리 기억 속의 긍정의 DNA」,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dgse.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0



9)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3월 1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월 취소·연기된 행사는 2,500여 건에 규모로는 약 600억 원에 이르고, 예술인 10명 중에 9명은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문화예술 관련 기업은 대구 전체 사회적기업 중 약 19.8퍼센트를 차지하며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이다. (사)커뮤니티와경제 (2019). 「2019년 대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이 제작한 영상 <힘을 내요! 그대>

사회적경제기업과 생사를 같이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작은 힘을 보탤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잠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기업들은 힘들어했고, 대구시 행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간지원조직도 사태의 변화를 지켜볼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해법을 만들고 행동해야 했다.¹⁰⁾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기업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물었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기업들의 피해 현황과 예측 피해상황, 제도권 내에서의 긴급 요청 사항, 정책적 제안 사항 등을 묻고, 연일 발표되는 유관기관 정책들을 모니터링했다. 현장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대응 속도에 따른 기업의 혼란이 컸으며, 지원 정책과 현장이 겪는 괴리로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다. 경영 애로에 대한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려고 ‘좌충우돌’ 뛰었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안을 해당부처와 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업들의 민원을 수합 정리하고 신속히 대안을 찾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TF대책회의에 부문별 지원기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10) 당시에 중간지원조직 역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당사자들의 새로운 시도에 지지를 보내고 이들이 할 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자율’과‘분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당사자 조직들의 위기를 묵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간지원조직의 한 활동가는 내부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재난 환경 속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로나는 기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습관과 수칙들을 변화하게 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경제구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전환의 시대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만, 유연하고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제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회적경제 현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기관의 지원은 제한적이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노력과 결과 고민하고 과정과 결과를 현장과 잘 소통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과 과정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 책임자도 동석해 논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11번가 상생장터와 우체국 홈쇼핑을 사회적경제 전문 판로유통채널인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와 함께 뚫는 노력을 했으며, 공공 민간기관과 연계해 긴급 금융지원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

동시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탤다. 온라인 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일상에 불을 밝힐 때, Light Up 대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취약계층(노숙인과 빈곤가정)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0만 원 기금 마련이 목표였는데,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 조직들도 기꺼이 동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기금은 본래 취지대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데,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함께한다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¹¹⁾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 중이다.

소통과 합의로,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은 개별 기업들의 임의 협력을 넘어 조직적 협력을 위한 연대 활동으로 이어졌다. 대구사회적경제 통합 연대체를 지향

11) 이로운넷 (2020.4.3). 「대구시-대구사경센터, 코로나19 이겨내는‘Light Up 대구!’와디즈 펀딩 진행」.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9>

하는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준비위원회’와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기금 모금활동’을 통해 대구 사회적경제인들로부터 성금 4,356만 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 6개의 청소년·청소년 쉼터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로 전달되었다. 모금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이 300여만 원의 출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병원비도 지원했다.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기초 단위 사회적경제협의체인 ‘(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회원사들의 후원 물품과 기금을 모아 의료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달했다. 대구 사회적경제 부문별 네트워크도 특성에 맞게 나눔활동 영역을 넓혀갔고 상생의 관계를 축적해 나갔다.

의미 있는 것은 2019년부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질적인 수평적 통합 연대체로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통합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2019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는 11월 하순부터 전국사회적경제지역협의회 현황 조사(11/25~12/13)를 실시, 지역 5개소 이상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동시에 대구 당사자 조직 실태조사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하는 부문, 기초, 연계 단위 16개 조직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후 12월 24일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해, 조직화의 방향과 위상, 명칭을 결정한다. 가칭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로 명명하고, 2020년 4월 초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총회 개최가 무산되었다.¹²⁾ 그러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3월 15일 정부는 대구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취약계층을 포함, 대구시민 전체가 코로나 19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경제·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태 안정 이후에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실험과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3월 31일 대구시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민관 공동으로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팀’을 구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7월까지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의 TF팀에 특별대응분과를 설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부문 조직으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취합하여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수평적 협의에 바탕을 둔 열린 통합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긴급 당면 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역할로 자기규정을 한 것이다. 활동의 첫 시작으로 우선적으로 대구 사회적경제에 도움을 준 전국 사회적경제에 도움 물품을 공개, 잔여 후원 물품의 배분 원칙을 공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팀’은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코로나 피해지원 특별대응분과를 운영하되, 민관거버넌스 구조로 분과를 구성하고 피해 기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로 결의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온라인 시장의 입점 경험이 있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는 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

12)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 3차 회의에서 5월 26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OEM-ODM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자는 데 합의를 모은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여행·관광, 교육·기타 서비스, 문화·예술, 일반 제조·유통, 식품·먹거리 등의 업종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피해 현황과 경영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사업화 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화를 이루어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프로세스가 그것을 보여준다. 3월 초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대구부문-지역별 협의회¹³⁾11 등과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내 모든 주체들이 동참하는 ‘거버넌스형 위기관리’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회의를 거듭하면서 연대 활동 속 조직화를 자연스럽게 이뤄낸 것이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재조직하는 것, 이것이 자기 개혁 능력일 것이다.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은 서두르지 않고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나가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동행자이자,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중심의 ‘대구연구자네트워크’에서는 3월 31일 코로나 대응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의 공헌 활동을 조사, 기록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구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에서는 다른 활동을 줄이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고용 유지 노력, 의료진들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기부금 전달, 취약계층에게 보호장비 및 식사 제공 등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하고 비용은 ‘대구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누구 할 것 없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해 상호 보완적으로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스스로 사회적경제를 확인하다

석 달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대구 사례들은, 대구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당면 문제에 대응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더 많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와 세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안목과 호혜적 관계망을 확보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 상황에서 이윤 획득 이상으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의 특성을,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또한 위로와 연대로 대응하는 방식들을 통해, 사회적경제인과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 상호 돌봄을 통한 ‘사회를 바꾸어가는 힘’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키워내고 있었다.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시행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인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을 체감하고 사회적경제인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세상을 돌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도 했다. 사회적경제 스스로 현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을 거쳤다고 감히 정의하고 싶다. ¹⁴⁾

13)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남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중구사회적경제협의회, 수성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광역시활기산업협회, 대구 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협의회,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활성센터, 대구사회적경제연구자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대구네트워크,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14) 소외된 이웃을 찾아 모금 배분 활동을 한 ‘위드협동조합’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말한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언젠가는 멈춰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변화될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것은 전 지구적인 사랑, 시민적 형제애라는 것들요... 그리고 그것들이 살림살이 경제로서 실천되고 조직될 때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들요.”

http://www.dgs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6

대구 밖의 사회적경제인들도 대구 사회를 소생시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발 빠르게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긴급지원’용(‘코로나대응 고용조정 0%를 위한 임대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억을 내놓았다. 매년 민간 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지고 있는 광주에서도 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 1톤을 포함한 먹거리와 각종 위생용품을 직접 트럭에 싣고 달려왔다. 광주 외에도 제주,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대구를 위한 물품 기부가 이어졌다. 재난의 현장에서 ‘연결’과 ‘공유’의 꽃을 피웠다.

사회적경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 계속해서 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가동시켜 시급히 운용 가능한 지원정책을 발굴, 제안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촉발시킨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충격을 줄이는 대응만 찾기도 역부족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환적인 사회적경제의 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구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복지 실행 수단으로 보던 시각을 벗어나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로 공동체 문제를 일상에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로와 연대로 삶의 활력과 인간적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거점이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돕겠다는 자조의식과 이를 도와주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사회적경제의 문제를 냉엄하게 진단하고 사회적경제가 갖는 가치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난, 안전, 돌봄, 생태 등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좋은’고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IT, 골목상권 등과도 연계해 호혜적 사회적경제가 우리 삶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도 융복합적 방식으로 발굴하고 연결해야 한다. 크고 작은 사업적 연대를 통해 지역에 협력을 안착시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지역력을 구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은 작은 단위, 지역에서의 성공이다. 외국의 경험도 소상공인, 소지역 등 작은 단위의 경제활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성공의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재난의 시대에 사회적경제인들은 사회적경제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잘 살려내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잘 부응하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러 주체에 의한 혁신적 협력 실험을 통해 시민 욕구에 더 다가가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대안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는 늘 유용한 도구이자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을 지탱하는 힘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제 중심의 다양한 연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깊게 사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삶과 사유의 틀을 넘어 새로운 지향의 사유와 실천을 과감히 준비해야 한다. 그 전에 비해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경제의 역할¹⁵⁾

최혁진(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 코로나19 시대의 10가지 Keywords

코로나19 위기가 사회적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을 10가지 Keywords로 정리

1.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생겨난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시장과 자영업 충격, 교육환경 변화 등 코로나 이후 사회문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 높아질 것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은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에 있어 기준점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 주게 될 것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큰 폭으로 반영('17년 ~)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발표('20년 1월)
- 지자체 사회적 가치 추진 지원계획 배포('20년 6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1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박광온 의원)

2. 지속가능성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과 격차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 미세먼지, 온난화 등으로 기후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 미세 플라스틱 등 생태계의 기본적 생존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 증대
- 코로나 위기로 국제사회는 이 모든 위험들이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이슈화되는 상황에 직면
- UN SDGs 등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담론화가 정부와 전문가 그룹을 넘어 경제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
- 그린 뉴딜 정책화 본격 추진

3.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생산, 유통, 소비에 나서야 한다는 국내외 정부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화될 것
-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단순히 기업의 평판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글로벌 납품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책임 평가 기준 강화
-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는 노르웨이와 네델란드 연기금의 투자 가이드 라인에 온실가스 배출 등

15) 이 자료는 (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난 20년 6월 29일~30일까지 진행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목회자 워크숍”의 주제강의의 원고임. -편집자 주

사회적책임 기준 강화

4. 강화된 통상규범과 무역장벽

-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윤리 및 사회적책임 지수 등에 대한 유럽의 통상규범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무역장벽으로 작용
- 제조업 기반이 약해진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를 겪으며 자유무역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국 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통상 규범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5. 보건예방과 건강한 삶

- 코로나 사망자의 다수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
- 약물에 의한 질환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생활습관의 개선 및 예방관리, 평상시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될 것

6. 요양시설

- 중대형 요양시설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체계의 취약성과 문제점 부각
- 보다 체계적인 재택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반의 소규모 요양시설 등 삶의 질과 자존감을 고려한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
- 기존 효율성과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
- 인공지능 기술과 커뮤니티 돌봄의 융합

7. 연대와 협력

- 코로나 대응 관련 지자체의 활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강화의 필요성 부각
- 개개인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협치의 중요성 증대
- 정부나 민간 차원의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유가치로서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강조

8. 인공지능 네트워크

- 교육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고령자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IT 기반의 보다 강화된 연결망을 필요로 하게 될 것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세밀한 욕구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망들이 형성될 것임

9. 기본소득

- 전면적인 기본소득 논의는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 및 실행이 뒤따를 수 있음
-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 및 부분적 적용은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에 혁신 동인이 될 수 있음

10.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

- 사회, 환경, 지속가능기술 등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위한 투자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의 확장은 사회혁신의 속도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

□ 사회적경제의 대응전략과 역할

주요 Keywords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변화들은 대부분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온 가치들과 맞닿아 있음. 하지만 가치와 지향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올바른 전략과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한 시점.

2021년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를 생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 아젠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정책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

1.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 제정 추진

- 현 시기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 수준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융합이 쉽지 않고, 결국 사회문제 해결도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기본법 제정이 있어야 보다 적극적인 공공자원의 개방과 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대응에 나설 수 있음

2. 사업연합 확대로 신사업 진출기반 마련 및 공제 사업 활성화

-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소상공인 수준의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극심한 경영 압박
- 반면 아이쿱 세이프넷 참여 등 안정된 소비유통망을 지닌 연합조직과 제휴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구성이 가능해진 점을 적극 활용
- 연합회를 통한 사업적 연계를 확대 강화하고 특히 공제사업을 활성화하여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

3.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과 연계한 적극적인 민관협력

- 정부가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전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주목해야 함
- 코로나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현 시기 주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로 정하고 적극적인 민관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 협치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
- 특히 지방정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4.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 융합

- 중대규모 요양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인간적인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모델화 작업 추진
- 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요양수가체계 등 정부의 정책 변화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협의 필요

5. 공정무역 등 국제사회 진출 확대

- 국제사회의 통상규범 강화는 오히려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온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정무역에는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물론 일정 수준이 규모화를 통한 생산 안정성 확보는 중요한 해결과제임.
-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 협동조합 조직들 간에 제휴 협력, 개발도상국 영세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안정된 지원기반 마련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국제사회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임.
- 사회적 가치 창출 차원에서 외교부, 코이카, 코트라와 협력체계 강화

6. 사회적 금융의 강화

-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그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함. 코로나 이후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사회적경제의 도전을 필요로 하겠지만 결국 관건은 얼마나 안정된 금융기반, 투자환경을 마련하는가에 있음.
- 사회적 금융의 확대 및 강화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 증대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과 과제가 될 것임.
- 사회가치연대기금의 규모화 및 지자체 기금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가 그런 뉴딜 국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판가름하게 될 것.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0.12.02(수).10:00